

Sports
Seoul
Culture

스포츠 워킹 투어
서울 빙상 이야기

스포츠 웨이브
<서울스포츠>가 꿈아보는
2023년 스포츠계 주요 키워드

서울 스포츠

No. 381
2023 01·02





서울특별시체육회 창립 70주년

70년을 한결같이
달려 온 서울체육,
앞으로의 70년도
여러분과 같이 뛸니다



2023

서울 스포츠

Bimonthly Magazine No.381
01 · 02 2023

발행일 2023년 1월 1일
발행인 박원하 서울특별시체육회장
편집인 임흥준 서울특별시체육회 사무처장
편집위원장 황선환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편집위원 정준영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교수, 정용철 서강대학교 교수, 정진욱 동국대학교 교수
편집 시민홍보팀 윤영하, 이해웅
등록번호 서울 라 4818
발행처 서울특별시체육회 (우)02119 서울특별시 중랑구 망우로 182(상봉동)
웹진 news.seoulsports.or.kr
전화 02-490-2700
디자인·제작 동아이앤디

본지는 <서울특별시 보조금> 지원으로 제작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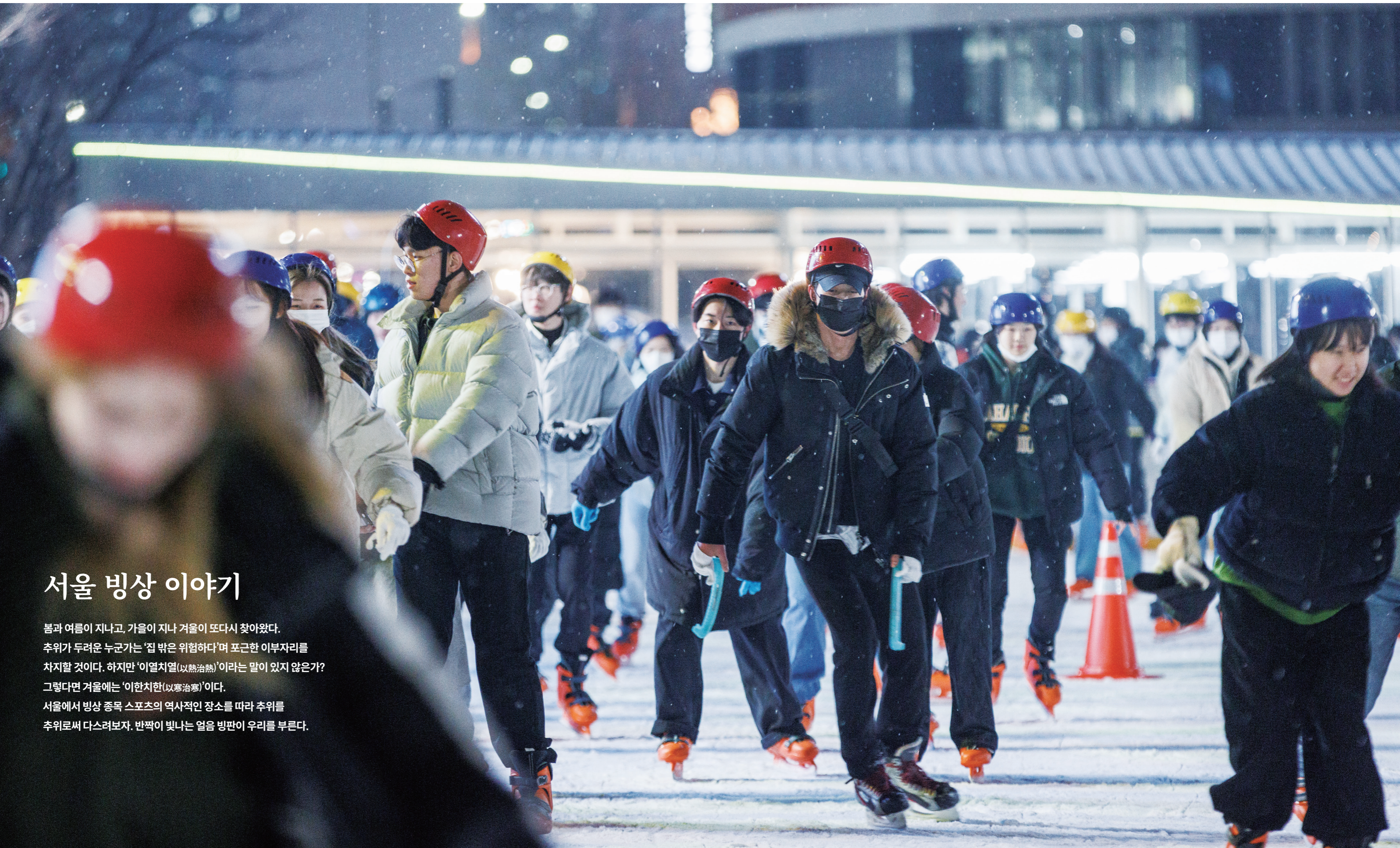
QR코드를 스캔하면
웹진으로 이동합니다!

Contents

- 04 스포츠 워킹 투어**
서울 빙상 이야기
- 12 스포츠 웨이브**
<서울스포츠>가 꼽아보는
2023년 스포츠계 주요 키워드
1 정책 · 민선 2기를 맞이하는 지방체육회
2 환경 · 스포츠에 스며든 ESG 경영
3 트렌드 · 포스트 팬데믹 시대의 스포츠
4 희망 · 모두의 스포츠
- 22 학교체육을 부탁해**
지속가능한 건강활동,
롱텀 프로젝트
- 26 공공스포츠클럽 탐방**
생활체육부터 전문체육까지 아우르는
금천스포츠클럽
- 30 스포츠 業UP**
서울특별시체육회, 대한민국 대표 도시
서울에서 스포츠를 외치다
박은선 경영기획부 총무회계팀 주임 &
서성진 스포츠진흥부 여가스포츠팀 주임
- 32 스포츠 데이터덤**
똑똑해진 인공지능 솔루션이 심판인 시대
- 36 스포츠 시사 읽기**
스포츠 메가 이벤트, 무엇이 문제인가?
- 40 남북 단일팀 역사 돌아보기**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단일팀과
평화 체제 구축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이후'를 그리며
- 44 랜선으로 배워봅시다**
설원 위의 예술, 스노보드
- 46 이것도 스포츠!**
사계절 내내 즐기는 커롤링
- 48 건강 팩트 체크!**
추위도, 통증도 이겨내는 운동법
- 50 여자교사체육공동체 원더티처 인터뷰**
우리를 구하러 온 나의 히어로,
원더티처
- 56 아무튼 스포츠**
운동과 조우한 채식
- 58 SSC 뉴스+SSAD 뉴스**
- 63 스포츠 모의고사**
여러분의 정답을 기다립니다

서울 빙상 이야기

봄과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지나 겨울이 또다시 찾아왔다.
추위가 두려운 누군가는 '집 밖은 위험하다'며 포근한 이부자리를
차지할 것이다. 하지만 '이열치열(以熱治熱)'이라는 말이 있지 않은가?
그렇다면 겨울에는 '이한치한(以寒治寒)'이다.
서울에서 빙상 종목 스포츠의 역사적인 장소를 따라 추위를
추위로써 다스려보자. 반짝이 빛나는 얼음 빙판이 우리를 부른다.





우리나라 최초 서양식 스케이트장인 경복궁 향원정 연못

조선 한양으로 거슬러 올라, 경복궁 향원정

우리나라 최초의 스케이트는 경복궁 향원정 연못에서 이루어졌다. 1895년 을미사변(명성황후시해사건) 이전까지 조선의 정치와 외교의 중심은 명성황후였다. 고종과 명성황후는 점진적 근대화를 통해 부국강병을 이룩하고자 했다. 때문에 선교사들이 근대적인 학교와 병원을 건립하는 데 적극적으로 관심을 표명하며 이들과 교류했다. 서구 문물에 관심이 많았던 명성황후는 겨울날 언더우드 부인을 비롯한 외국인 선교사들에게 경복궁 향원정 연못 얼음판 위에서 이른바 스케이트라는 것을 타보도록 했으며 이를 향원정 안에 마련된 온돌방에서 구경했다고 한다. 우리나라 최초의 서양식 스케이트장 장면이다. 스포츠 종류의 하나로서 스케이트와 스케이트의 도입은 1908년 YMCA(기독교청년회)에 의해서였다.

빙상운동회가 펼쳐졌던 곳, 한강 철교 아래

‘한강’의 결빙이 단단해져서 조선일일신문(재조 일본인 경영) 주최로 빙상운동회를 개최한다는 내용의 기사도 신문에 실리기 시작했다. 스케이트는 일제강점기에 본격적으로 확산됐다.

1915년부터 경성고등보통학교(현재 경기고)에서는 해마다 2월이 되면 한강철교 하류에서 빙상운동회를 개최했다. 날이 풀려 한강 얼음이 단단하지 못할 경우에는 동대문 밖 논에서 빙상운동회를 치르기도 했다. 경성고등보통학교에서는 재학 기간 동안 학생들에게 ‘스케이트 어름 지치기’를 크게 장려해 일주일에 몇 시간씩 연습하게 했다. 그 결과 전조선스케이트대회에서 1등을 배출하는 성과를 거뒀다. 1918년 <매일신보>에는 경성고등보통학교 학생들의 빙상운동회 사진이 실리기도 했다. 학생들의 빙상운동회 기사와 사진은 일반인들에게 스케이트를 확산시키는 데 영향을 끼쳤고, 스케이트는 남성적 스포츠로 부각됐다.

3·1운동 이후 조선총독부가 이른바 문화정치를 실시하면서 1920년대 한국인이 설립하고 운영하는 <동아일보>, <조선일보>와 같은 한글 신문이 창간하고, 대중매체 보급과 함께 더 많은 서구 문물이 유입됐다. 도시의 발달과 함께 모던보이와 신여성이 출현하고 소비문화가 발달하면서 여가문화를 향유하는 풍조가 확산됐다. 신문에서 겨울 스포츠인 스케이트와 스키 관련 기사를 소개하면서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시작했다.



COURSE 1

1. 광화문광장 - 2. 서울광장



Spot 1* 광화문광장

지난 2022년 8월 광화문광장이 다시 문을 열었다. 시민들에게 휴식과 산책 등의 일상과 축제·행사 등의 비일상을 연결하는 대표적 광장으로 서울시민들은 물론 국내외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

- 위치 종로구 세종로



Spot 2* 서울광장

서울특별시청 앞에 있는 광장으로 2004년 5월 조성됐다. 조성된 이후 서울광장은 2022 겨울에는 서울광장 등 시민들에게 문화생활을 제공한다. 이번 겨울에는 3년 만에 서울광장 스케이트장이 개장했다. 친구·가족·연인과 함께 스케이트 나들이도 떠나보자.

- 위치 중구 태평로2가



잠깐만!

***서울광장 스케이트장, 시민의 품으로 돌아오다**

서울 도심의 명소로 자리 잡은 서울광장 스케이트장이 3년 만에 다시 돌아와 겨울 스포츠와 문화 체험의 장소로 새단장했다. 지난 12월 21일 개장한 이곳은 평일과 주말을 가리지 않고 많은 시민이 찾고 있다. 서울특별시체육회가 주관하는 서울광장 스케이트장으로 여러분을 초대한다.

- 운영 기간 2022. 12. 21.(수) ~ 2023. 2. 12.(일)
 - 운영 시간 10:00 ~ 21:30
 - 프로그램 자유스케이팅, 스케이팅 강습, 아이스 범퍼카
 - 이용 요금 1회 1시간, 1천 원 (스케이팅 대여료 포함)
- *이용 시간 및 프로그램 등 정확한 정보를 알고 싶다면 서울광장 스케이트장 홈페이지를 확인해주세요.



한강에서 펼쳐진 전조선빙상대회

1925년 1월 조선체육회 주최로 '전조선빙상경기대회'가 한강철교 아래 빙상에서 개최됐다. 중학생, 전문학생, 일반인, 청년들이 참가했으며 50전이라는 소정의 참가비가 있었다. 학생부, 청년부로 나뉘어 치러진 이 대회에는 63명이 참가했는데, 이 가운데 20명이 인천, 평양, 함흥 지방에서 온 선수였다. 경기는 스피드스케이팅 위주로 진행됐다. 피겨스케이팅도 함께 진행하고자 했지만 얼음이 녹았다가 다시 어는 등 박빙(薄氷)이었던 까닭에 피겨 등 몇 종목은 취소됐다. 한강 철교 아래 오른쪽 강기슭에는 빙상대회를 구경하려는 인파가 몰려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당일 한시적으로 전차 운행을 늘렸음에도 전차가 대만원이었다고 한다.

1920년대 각종 빙상경기대회가 개최될 수 있었던 까닭은 각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체육 과목의 하나로 스케이팅을 가르치고 교내외 빙상경기대회를 개최하면서 빙상 선수가 배출되었기 때문이었다. 각 학교의 학생을 대상으로 개최된 빙상경기 관련 <동아일보> 보도는 103건으로 조선체육회, 동아일보사 주최 전조선빙상경기대회 관련 보도 111건, 관서체육회 주최의 전조선빙상경기대회 관련 보도 114건과 비슷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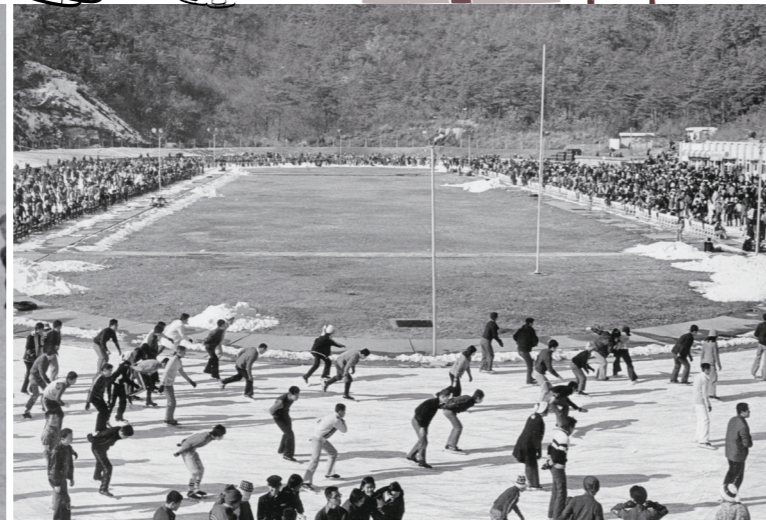
빙상경기대회에서 선수 개인별 경기는 물론이고 단체

별 시합이 가능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학교 체육에 스케이팅 종목을 개설했기 때문이다. 학생빙상경기를 통한 역량 증진으로 전문선수가 등장했다. 학생 빙상선수가 주축이 되어 각 지역별 빙상경기와 전조선빙상경기에 출전함으로써 대회의 지속적인 운영이 가능했던 것이다.

1929년에는 한강 인도교 아래에서 조선체육회와 동아일보사 공동 주최로 제2회 전조선빙상경기대회가 개최됐다. 이 대회에서는 여자 선수도 참가 가능하게 규정이 바뀌었다. 1930년 제3회 전조선빙상경기대회에서는 여자 선수 1명이 홍일점으로 참가한다는 점이 부각되며 대중의 기대를 불러일으켰다. 1933년 1월 개최된 전조선빙상경기대회에는 남녀 선수 250명이 참가했다. 여자 선수의 참가가 늘어나기 시작했고, 1934년 1월부터는 대회 이름이 '전조선남녀빙상선수권대회'라고 표기되어 여자 선수의 대회 참여가 공식적으로 부각되기 시작했다. 빙상경기대회가 가장 많이 개최된 지역은 서울 한강이었다. 일제강점기 경성(지금의 서울)은 한반도 중심부이자 국토의 심장이기도 했고 지리적으로도 남북의 중앙에 위치해 있었다. 또한 '백구활빙구락부(스케이팅클럽)'라는 선구적인 빙상단체가 조직되어 활동했고, 학교에서는 겨울이면 빙상 행사를 빈번하게 개최해 빙상경기 인재를 배출했다.



1930년대 한강에서의 스케이팅



1976년, 태릉국제스케이팅장을 찾은 서울 시민들

COURSE 2

3· 조선왕릉전시관 - 4· 서울 태릉 - 5· 서울 강릉



Spot 3* 조선왕릉전시관

서울 태릉과 강릉을 방문한다면 이곳에서 입장권을 발권하기 때문에 필수로 들러야 하는데, 조선왕릉에 담긴 역사와 문화를 한눈에 볼 수 있다. 시대에 따른 왕릉 조성 과정의 변천도 살펴볼 수 있어 태릉과 강릉을 방문하기 전 관람하는 것을 추천한다.

- 위치 노원구 화랑로 681
- 운영 시간 2~5월·9~10월 09:00~17:00
6~8월 09:00~17:30
11~1월 09:00~16:30

Spot 4* 서울 태릉

조선 11대 중종의 세 번째 왕비 문정왕후 윤씨의 능이다. 윤씨가 세상을 떠나 산릉 자리를 중종의 정릉 부근으로 했다가, 명종의 반대로 산릉 자리를 다시 정했다. 이후 현재의 자리로 산릉이 결정되면서 능의 이름이 태릉(泰陵)이 됐다.

- 위치 노원구 화랑로 681
- 관람 시간 2~5월·9~10월 09:00~18:00
6~8월 09:00~18:30
11~1월 09:00~17:30

Spot 5* 서울 강릉

정자각 앞에서 바라봤을 때 왼쪽이 명종, 오른쪽이 인순왕후의 능으로 쌍릉의 형식을 이룬다. 서울 태릉과 인접하고 있어 많은 이가 함께 방문한다. 가을에는 '태강릉 숲길'이라는 이름으로 단풍코스를 개방하기도 한다.

- 위치 노원구 화랑로 727
- 관람 시간 2~5월·9~10월 09:00~18:00
6~8월 09:00~18:30
11~1월 09:00~17:30

동계 스포츠 종목 활성화를 위해, 태릉국제스케이팅장

1971년 2월 동계 스포츠 종목의 활성화를 위해 태릉국제스케이팅장이 건립됐다. 인공 빙상 스케이팅장이 개장하면서 국가대표선수 훈련, 선수 저변 확대에 큰 역할을 했다. 1975년 제55회 전국동계체육대회부터는 실내·실외 경기를 확실하게 분리해 실외는 태릉국제스케

이트장에서, 실내는 당시 유일한 실내 링크인 동대문스케이팅장에서 전국동계체육대회의 기틀을 잡아가기 시작했다. 그러나 1987년 동대문 스케이팅장은 적자를 감당하지 못하고 롤러스케이팅장으로 개조됐다. 스케이팅 훈련을 원하는 선수들은 많아지는데 아이스링크가 태릉 한 곳에만 있어 훈련하기도 힘든 상황이 됐다.



국내 빙상 종목 활성화를 위해 1971년 2월에 설립된 태릉국제스케이팅장은 국내 선수와 일반 시민이 모두 이용할 수 있다

스케이팅 보급을 위해, 목동아이스링크

국내 빙상 수준을 세계 수준으로 올리기 위해 국제 규격에 맞춰 빙상 시설을 현대화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됐고, 이에 따라 1987년 국제대회와 빙상 인구 저변확대를 위한 실내아이스링크 건설 계획이 발표됐다. 1988년 서울올림픽을 앞두고 김포공항에서 잠실 주경기장으로 가는 길목인 목동을 개발하기로 하면서 이곳에 종합운동장과 아이스링크를 조성하기로 했다.

1988년 캘거리 동계올림픽 시범 종목으로 채택된 쇼트트랙에서 김기훈과 이준호 선수가 각각 1,500m와 3,000m에서 금메달을 따는 성과를 거뒀다. 국제대회에서 실내아이스링크 시설을 경험한 선수들은 실내아이스링크의 필요성을 더욱 절실히 느꼈다.

1989년 11월 목동종합운동장 완공과 함께 한국 최초로 국제 규격의 실내아이스링크가 건립됐다. 지하 1층, 지상 2층에 가로 30m, 세로 61m로 된 두 개의 아이스

링크와 함께 5,000석의 관중석으로 마련됐다. 2022년 현재까지도 서울에서 가장 큰 실내아이스링크로 자리하고 있고, 지속적인 관리로 신설아이스링크 못지 않은 시설을 유지하고 있다.

목동아이스링크 개장으로 선수들이 훈련하고 시합을 치를 수 있는 공간이 마련돼 실내아이스링크에서 쇼트트랙, 피겨스케이팅, 아이스하키 등 동계스포츠 종목의 국내 및 국제 경기를 치를 수 있게 됐다.

시민들도 스케이팅을 쉽게 접할 수 있어서 스케이팅의 관심과 보급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 시민들도 주 5일제 근무로 인해 여가시간이 늘어나 레저스포츠에 관심이 높아졌고, 가족, 연인, 친구들이 함께 목동아이스링크를 찾아 스케이팅을 타면서 인기가 늘어났다. 목동아이스링크는 우수 선수 육성, 엘리트 스포츠 활성화, 빙상스포츠 대중화, 스케이팅 생활체육 보급, 빙상인구 저변 확대에 기여했다는 데 역사적 의의가 있다.



COURSE 3

6. 목동아이스링크

Spot 6*목동아이스링크

‘와이키키 목동아이스링크’가 정식 명칭이다. 1989년 개장해 현재는 민간 기업인 와이키키 목동아이스링크가 서울시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한다. 빙상 종목 경기 시험장은 물론 피겨스케이팅 공연장으로도 많이 활용하며,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스케이팅 강습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 위치 양천구 안양천 939
- 운영 시간 월~금 14:10~ 18:00
토~일 12:10~ 18:00



지금까지 한양의 동계 스포츠부터 서울의 동계 스포츠까지 시간의 흐름 속을 함께 거닐었다. 조선시대 한양에서 외국인 선교사들에 의해 첫 순간을 맞은 낯선 빙상 종목은, 2023년 현재 온 국민이 어디에서나 쉽게 즐길 수 있는 친근한 종목이 됐다.

우리는 이제 마음만 먹으면 서울 그 어디든 스케이팅을 즐기러 떠날 수 있다. 지난 12월,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에는 서울특별시체육회가 운영하는 서울광장 스케이팅장이 개장했다. 코로나19로 3년 동안 운영하지 않아 많은 시민이 그리워했던 차에 연말 선물로 다가왔다.

송파구에 있는 올림픽공원 스케이팅장도 겨울철 명소로 유명하다. 공원 내 평화의 광장에서 겨울 동안 개장

하며, 서울광장과 마찬가지로 저렴한 비용으로 운영하니, 서울광장 스케이팅장을 방문해 본 사람이라면 올림픽공원에서 새롭게 스케이팅을 즐겨보는 것은 어떨까. 코로나19가 종식되고 처음 맞이하는 겨울이다. 그동안 이불 속에서 꿈꿨던 서울광장으로, 올림픽공원으로 동계 스포츠를 즐기러 떠나자. 추위는 추위로, ‘이한치한(以寒治寒)’이다. ❄️

글을 쓴 김성은은 대구한의대학교 기초교양대학에서 교수로 있다. 한국근현대사학회 이사 겸 편집위원과 한국문인협회, 부산여성문학인협회, 여기작가회 회원, 영축문학회 기획국장을 맡았으며, 2021 <여기> 수필 신인상으로 등단해 여러 방면에서 활동한다.



Seoul Sports
Keywor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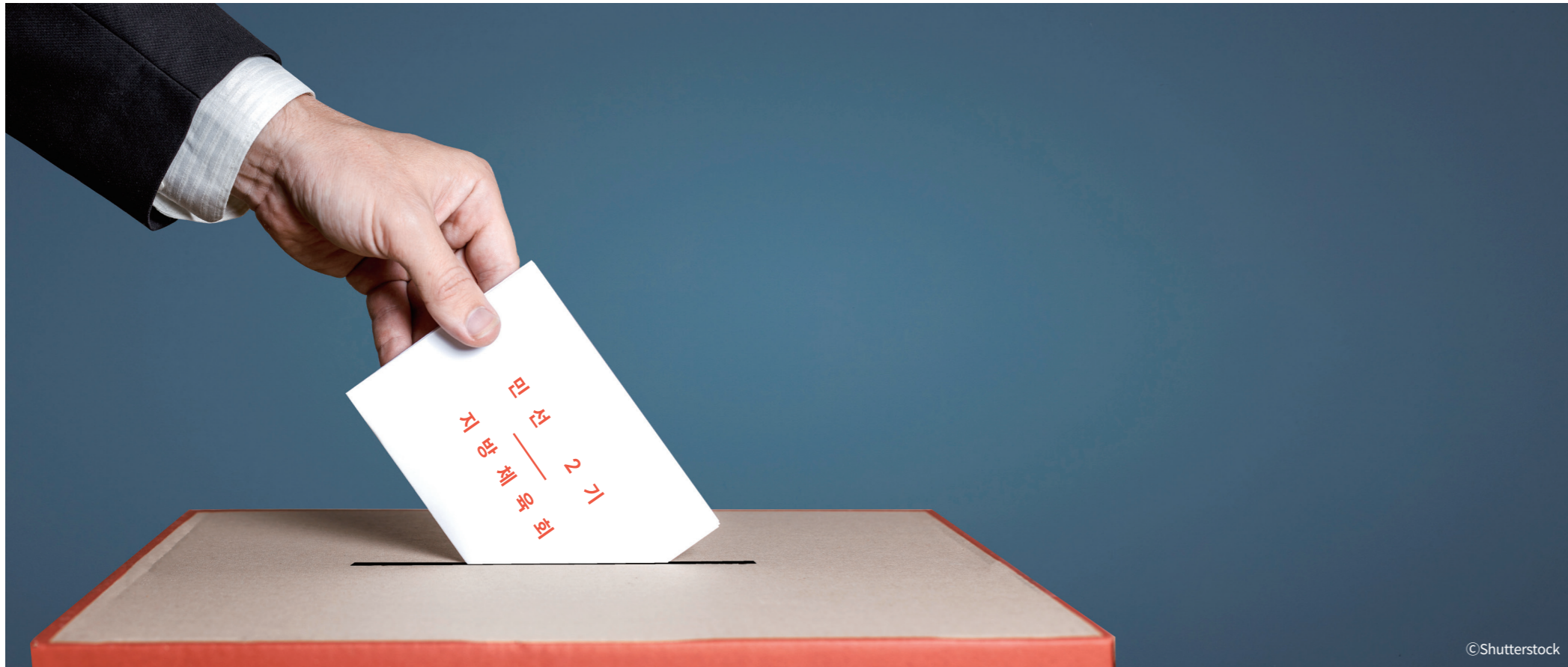
<서울스포츠>가 꼽아보는 2023년 스포츠계 주요 키워드

토끼의 해를 맞은 2023년, <서울스포츠>가
정책, 환경, 트렌드, 희망의 키워드로
토끼처럼 꺾꺾꺾꺾 도약할 스포츠계 주요 이슈를 전망한다.





민선 2기를 맞이하는 지방체육회



12월 15일은 17개 시도체육회장, 22일에는 228개의 시군구체육회장 선거일이었다. 2020년 1월 지방자치단체장과 임기를 맞추기 위해 3년 임기의 첫 민선 단체장을 선출한 이후 앞으로 4년간 지방체육회를 이끌어갈 민선 2기의 수장을 뽑는 날이었다. 출마를 선언한 후보들의 공약을 보면 지방체육회의 발전은 이미 기정사실화된 듯하다. 부디 후보자들의 공약(公約)이 공약(空約)으로 되질 않기를 바랄 뿐이다.

민선체육회장 제도의 발자취
전문체육과 생활체육의 유기적 연계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대한체육회와 국민생활체육회 통합으로 시작한 스포츠 선진화 물결은 민선체육회장 제도로 이어져 왔다. 민선체육회장 제도는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원이 시도체육회장과 시군구체육회장을 할 수 없도록 한 제도로 국민체육진흥법 제43조의2(체육단체 의장의 겸직금지) 조항 신설을 통해 스포츠와 정치의 분리를 법적으로 명문화했다.

이 법 개정안의 취지는 지방자치단체장인 정치인이 체육단체를 선거 조직이나 사조직으로 이용하는 등 체육단체를 정치인의 인지도를 높이거나 정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데 이용하지 못하도록 스포츠의 정치화를 배제함으로써 체육단체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확립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민선 1기의 체육단체장 시대를 열었으나 원래 취지대로 스포츠와 정치가 분리되어 지방체육회의 독립성과 자율성이 확보되었다기보다는 기존 예산 확보를

위해 자치단체장과 의회에 목을 매는 눈치 집단으로 전락한 듯하다. 단체 성격상 임의단체인 지방체육회에서는 힘 있던 시도지사에서 힘없는 민선체육회장 체제로 전환됨으로써 오히려 체육회의 위상 저하 및 예산 축소로 지방 체육의 퇴보를 우려하는 불멘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 지방체육회를 법정 법인화하고 지방체육회 운영비 지원을 의무 조항으로 하는 국민체육진흥법이 개정(2020. 12. 8. 법률 제17580호)됨으로써 제도적

“ 지역민들이 스포츠를 통해 건강과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보다 낮은 자세에서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봉사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

으로 지방체육회의 자율성을 확보할 기반이 마련됐다고 볼 수 있다. 체육인들의 기대와 우려 속에 출발했던 민선 1기는 체육회 법정 법인화라는 성과를 이뤘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전 세계 팬데믹 현상인 코로나19 유행으로 역량을 제대로 발휘하기도 전에 민선 2기 시대를 맞이하게 됐다.

민선 2기의 과제와 바람

민선 2기로 새롭게 출발하는 지방체육회가 풀어야 할 과제와 바람을 짚어 본다. 첫째는 안정적인 재정 확보 문제다. 현실적으로 재정 자립도가 낮아 지방 보조금에 의존하고 있는 체육회의 안정적인 보조금 확보는 매우 중차대한 문제다.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 3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운영비 의무 지원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도세 수입 결산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명시한 강원도 체육진흥조례 외에 대부분의 자치단체에서는 이에 대한 세부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민선체육회장들이 조금이나마 지방자치단체의 휘둘림 없이 직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이고 예측 가능한 보조금을 확보할 수 있

도록 체육진흥조례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한다. 또한 이와 함께 체육회의 재정 자립도를 높일 수 있는 자체 수익 사업의 개발이 요구된다.

둘째는 지방체육회의 역할 확대 문제다. 체육회의 자율성을 요구하면서 그저 중앙이나 지방정책 사업을 대행하는 역할에 안주해서는 안 된다. 그 지역 특성을 누구보다 잘 아는 지방체육회이기 때문에 지역민의 생활체육 저변 확대를 위해서 특성화되고 차별화된 맞춤형 사업을 찾아내야 한다. 끝으로 지방체육회장의 마음가짐 문제다. 지방체육회장직은 지역사회의 체육 발전을 위하여 봉사하고 헌신하는 자리다. 개인의 명예를 위한 자리가거나 개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거쳐 가는 자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 지역민들이 스포츠를 통해 건강과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보다 낮은 자세에서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봉사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체육인의 한 사람으로서 민선 2기의 열정을 기대해 본다. ✨

글을 쓴 손석정은 스포츠법·정책 전문가로서 한국체육정책학회와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회장을 역임했고, 오랜 세월, 공군사관학교와 남서울대학교에서 후학 양성을 위해 봉직하였다. 현재는 체육을 사랑하는 학자의 한 사람으로서 그동안의 연구와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 체육단체의 위원 및 자문 활동을 왕성하게 이어가고 있다.



스포츠에 스며든 ESG 경영

코로나19를 겪으면서 기업들은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책임을 바탕으로 '지속가능' 경영 패러다임으로 전환을 모색하고 있다. 바로 기업들의 지속가능한 성공 전략의 핵심 요인으로 ESG 경영이 주목받고 있다. 이러한 시대의 흐름에 필자는 국내 스포츠 기업들의 ESG 경영 활동 사례와 과제를 제시하여 스포츠 분야에서 ESG 경영의 도입과 수행이 활성화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

ESG 경영이란
국내 스포츠 분야도 ESG 경영에 관심이 커지면서 연관 정책들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다. 기업 관점에서 E(Environment)는 친환경 문제에 대한 경영 노력, S(Social)는 고객·직원·협력사·지역사회 등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사회적 책무, G(Governance)는 투명한 기업 운영 등 지배구조 개선을 의미한다. 지금까지는 이 세 가지 요소가 기업 경영 평가에 독립적으로 인식되었다. 하지만 이제 ESG가 하나의 포괄적 개념으로 기업의 비재무적 평가와 신뢰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핵심 경영 요인이 됐다.

국내 스포츠 ESG 경영 사례
시대적 흐름에 맞추어 국내 스포츠 기업도 ESG 경영에 적극적이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은 경륜·경정 사업에 대한 ESG 경영을 추진한다. 친환경 전기 모터보트 개발, 스포츠 문화 복합 공간 조성, 투명하고 청렴한 조직문화, 의사결정 구조 확립 등을 포함한다. K리그와 각 구단은 탄소 배출 감소, 플라스틱 재활용 등의 친환경 캠페인을 진행한다. 메인 스폰서인 현대오일뱅크와 경기에서 수거된 페플라ستиков을 소재로 MD 상품을 제작하는 '현대 엑스티어 에코 캠페인'이 대표적이다. 선수들은 폐기물 재활용 소재나 페플라ستиков 재생 폴리에스테르 원사로 만든 친환경 유니폼과 축구 스타킹을 착용하고, 팬들에게 친환경 응원 도구를 증정한다. 이외에도 팬과 함께하는 플로깅(Plogging, 조깅하며쓰레기를 줍는 활동) 캠페인 등 친환경 활동을 벌인다. KBO 구단들의 지역사회 공헌활동도 빠질 수 없다. KT 위즈는 '위즈패밀리'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홈런존 구역을 지정해 홈런 1개당 1,000만 원을 지역 소상공인에게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또한 어린이 날에는 청각장애 아동을 대상으로 '꿈뽀 교실'을 연다. 이외에도 지역 상생 행사를 다양하게 펼친다. 휠라코리아는 재생 섬유를 활용한 유니폼을 만들어 제주유나이티드FC 선수들에게 지급했다. 구장 내에는 휠라존을 구성해 탄소 중립 체험 공간을 마련했고 대중교통을 이용한 팬들에게 지속가능 소재로 만든 가방과 신발을 제공했다. 아디다스(Adidas)는 서울시와 안전하고 쾌적한 스포츠 환경을 만들어가는 '서울아 운동하자' 사회공헌 프로젝트를 수행하여 낙후된 시설로 이용이 어려웠던 농구장과 족구장 등을 생활 스포츠 공간으로 탈바꿈시켰다. 유명 스타 선수에게 집중하던 스포츠 마케팅이 최근 비인기, 기초 종목으로 빠르게 다변화하고 있는데, 이는 선수와 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모습으로 스포츠 자체가 주는 감동을 느끼도록 기업의 사회적 가치를 구현하는 것과 맥을 같이 한다.

인'이 대표적이다. 선수들은 폐기물 재활용 소재나 페플라ستиков 재생 폴리에스테르 원사로 만든 친환경 유니폼과 축구 스타킹을 착용하고, 팬들에게 친환경 응원 도구를 증정한다. 이외에도 팬과 함께하는 플로깅(Plogging, 조깅하며쓰레기를 줍는 활동) 캠페인 등 친환경 활동을 벌인다. KBO 구단들의 지역사회 공헌활동도 빠질 수 없다. KT 위즈는 '위즈패밀리'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홈런존 구역을 지정해 홈런 1개당 1,000만 원을 지역 소상공인에게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또한 어린이 날에는 청각장애 아동을 대상으로 '꿈뽀 교실'을 연다. 이외에도 지역 상생 행사를 다양하게 펼친다. 휠라코리아는 재생 섬유를 활용한 유니폼을 만들어 제주유나이티드FC 선수들에게 지급했다. 구장 내에는 휠라존을 구성해 탄소 중립 체험 공간을 마련했고 대중교통을 이용한 팬들에게 지속가능 소재로 만든 가방과 신발을 제공했다. 아디다스(Adidas)는 서울시와 안전하고 쾌적한 스포츠 환경을 만들어가는 '서울아 운동하자' 사회공헌 프로젝트를 수행하여 낙후된 시설로 이용이 어려웠던 농구장과 족구장 등을 생활 스포츠 공간으로 탈바꿈시켰다. 유명 스타 선수에게 집중하던 스포츠 마케팅이 최근 비인기, 기초 종목으로 빠르게 다변화하고 있는데, 이는 선수와 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모습으로 스포츠 자체가 주는 감동을 느끼도록 기업의 사회적 가치를 구현하는 것과 맥을 같이 한다.

“ ESG 경영은 잠깐의 트렌드가 아닌 피할 수 없는 대세다 ”

ESG 경영의 균형적 발전이 필요한 때

많은 스포츠 기업이 ESG 경영 활동을 수행하지만 다수 활동이 E(친환경)와 S(사회적 책임)에 집중되어 있어 ESG 경영의 균형적 수행에 아쉬움이 남는다. 실제로 친환경 및 사회적 책임의 트렌드에 맞춰 기업 이미지 제고를 위한 마케팅 전략의 일부로 치우치고 있지 않느냐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G(지배구조 개선)' 분야에 대한 기업의 적극적인 경영 활동이 미흡하다. 기업 내부 조직 구조와 운영 방식 등 거버넌스에 대한 개선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해서 많은 기업이 꺼릴 수밖에 없다. 국내 스포츠 기업들은 ESG 경영을 균형적으로 추진해야만 한다. 특히 'G'에 대한 적극적인 개선과 노력이 필요하다. 그렇게 할 때, 높은 윤리적 가치를 기반으로 한 책임성·투명성·공정성·반부패성이 강조되는 경영을 통해 다양한 이해관계자(사회, 고객, 직원, 협력사, 투자자)로부터 지속적인 지원과 신뢰를 이끌어 낼 수 있다. 혁신적인 스포츠 기업 나이키(Nike)는 2022년 3월, 중국에서 벌인 불매운동으로 위기를 맞은 적이 있다. 중국 정부와 중국에서 가

장 넓은 지역인 신장 위구르 자치구의 강제 노동 착취와 탄압에 반대하는 불매운동을 벌였다.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서 생산된 면화를 사용하지 않겠다고 발표한 것이다. 하지만 나이키는 오히려 시장 전망을 웃도는 매출과 수익을 기록하고, 주가도 약 15% 급등했다. 이는 나이키가 1990년대 제품 생산 과정에서 아동 노동을 착취했다는 비난에 직면하여 1998년 엄청난 적자와 1,500명 이상의 구조 조정을 감수한 이래 끊임없는 경영 혁신으로 건전한 ESG 기준과 철학을 유지한 결과다. 실제로 나이키는 2018년부터 MSCI ESG 등급 A를 변함없이 유지하고 있다. ESG 평가가 높을수록 기업이 이해관계자들을 위한 가치를 만들어냄으로써 기업의 가치를 높이고 환경의 변화 위협으로부터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는 것이다. ESG 경영은 잠깐의 트렌드가 아닌 피할 수 없는 대세다. 국내 스포츠 기업들도 ESG의 본질을 이해하고 조직의 효율적 운영에서 한발 더 나아가 ESG를 포괄하는 경영 패러다임으로 변화해야 한다. ESG 경영의 비전과 목표를 세우고, 대응 전략을 마련해 지속가능한 미래 경영을 펼치기 위한 적극적인 투자와 노력이 필요한 시기다. ✎

글을 쓴 **홍진배**는 미국 매사추세츠대학교에서 경영학(스포츠경영) 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국립인천대학교 체육학부 교수로 재직 중이다. 대학 스포츠산업창업지원센터장을 맡고 있으면서 스포츠 창업기업들의 성장과 도약을 위해 교육 및 투자 유치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Shutterstock

트렌드

포스트 팬데믹 시대의 스포츠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20대 스포츠 생활 트렌드'라는 주제의 브레인 스토밍(Brainstorming)을 진행한 적이 있다. 코로나로 인해 고등학교 2년 동안 제한적인 스포츠 활동만 했던 학생들이다. 이때 나온 공통 키워드는 '오운완(오늘 운동 완료)', '보디프로필'이었다. 포스트 팬데믹 시대의 스포츠는 어떻게든 변화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예감이 들었다.



스포츠 참여 플랫폼의 변화

문화체육관광부의 <2021 국민생활체육 조사>에 따르면, '최근 1년간 규칙적으로 체육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생활체육 참여율'은 2021년 60.8%로 2020년 60.1%에 비해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최근 1년간 규칙적 체육활동 참여가 변화한 이유'로는 체육활동 가능 시간(37.1%)이 가장 높은 이유로 나타났고 다음으로 코로나19(21.2%), 체육시설 접근성(15.3%)으로 나타났다. 이는 코로나19로 사회 활동에 제한이 따르면서 파생된 개인 시간의 증대와 감염병 예방 등 건강관리 목적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코로나19가 스포츠 참여의 양적·질적 변화에 영향을 끼쳤다고 보기에는 어렵다. 그렇다면 과연 코로나19로 인해 찾아온 스포츠 참여의 큰 변화는 무엇일까?

'스포츠 참여 플랫폼의 변화'다. 쉽게 말해서 스포츠 참여의 디지털화가 가속화됐다는 것이다. 스마트폰 하나만 있어도 혼자 언제, 어디서든 강습도 받고 고기능 웨어러블 디바이스 덕분에 개인이 운동 효과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비대면 스포츠 코칭 서비스가 활성화됐다. 이제는 이러한 서비스가 새롭거나 참신한 것이라기보다는 스포츠 참여의 하나의 방법일 정도로 보편화됐다.

스포츠 참여 목적의 변화

사람들의 스포츠 참여 양상에는 어떤 변화

가 있었는지 알아보자. 우선 장기간 우리 일상에 큰 변화를 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건강관리에 관한 관심이 증가했다. <트렌드 코리아 2022>에서는 작년 트렌드의 키워드로 '헬시 플레저(Healthy Pleasure)'를 주목했다. 헬시 플레저는 Healthy(건강한)와 Pleasure(기쁨)가 결합한 단어로, 건강관리의 즐거움, 건강한 기쁨을 의미한다. 괴로움이 아닌 '즐거움'에 초점을 맞춘 신체적·정신적 건강관리법이다.

입맛에 맞는 저칼로리 음식을 먹고, 효율적으로 멘탈 관리를 하면서 재미있게 운동하는 것이 특징이다. 사회적 거리 두기

“
그 무엇과 대체할 수 없는 스포츠는 또 한 번의 변화를 경험할 것이다
”

해제 이후로는 집 밖 활동과 대면 교류가 잦아졌다. 실내 체육시설 이용이 가능해지면서 사람들은 야외는 물론 실내에서도 스포츠 활동을 즐긴다. 또한 스포츠 활동을 SNS에 공유하고, 남들에게 인정받고 싶어 하는 스포츠의 일상화가 급격히 가속화된 것도 큰 특징이다.

소비자리서치 연구기관 컨슈머인사이트에서 7개월간(2021년 11월-2022년 5월) 조사한 여가 활동 관심도 결과를 살펴보면 운동·스포츠(직접 참여+관람) 관심 증가는 40%로 관광·여행(61%) 다음으로 높게 나타났다.

세부적으로는 걷기·조깅 등 야외 스포츠 참여에 관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스포츠 참여가 엄격한 방역 방침 때문에 제한된 '실내·비대면·정적' 활동에서 자유로운 '야외·대면·동적' 활동으로 중심이 이동한 것으로 보인다. SNS에서 야외 활동과 동적 활동 공유 횟수는 코로나19 이후에 더욱 가속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기존의 스포츠 참여인 건강, 즐거움을 넘어서서 자신의 스포츠 활동이 일상화되고 이것을 공유하는 일종의 스포츠 참여 목적에서도 변화가 일어났다고 볼 수 있다.

포스트 팬데믹 시대의 스포츠는?

앞서 이야기한 대로 포스트 팬데믹으로 인한 주요한 변화는 스포츠 참여 플랫폼의 변화와 참여 목적의 변화다. 이러한 변화에 따른 스포츠의 모습은 과연 어떠한 것인가? 포스트 팬데믹 시대에서 스포츠의 모습은 대면과 비대면의 공존을 통해 일상 속의 스포츠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코로나19는 스포츠 디지털화(化)를 가속하는 방아쇠(Trip) 역할을 했으며, 이로 인해 스포츠를 향유할 수 있는 또 다른 환경과 문화가 생겨났다.

사회적 거리 두기 해제 이후 스포츠에 접근할 수 있는 확장성이 생긴 만큼 개인의 스포츠 참여는 다양한 방식으로 증대될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이전에는 사람들이 점진적으로 기술을 받아들여 활용하는 양상을 보였으나 코로나19 이후에는 건강

과 안전을 보장받기 위해 기술을 급격히 받아들였다. 포스트 팬데믹 시대에는 건강과 안전 등에 관한 소비자의 욕구가 보다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 스포츠 활동에서 소비자의 건강과 안전에 관한 욕구를 반영해 개인 건강 및 니즈(Needs)에 맞춤형된 서비스가 성장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른 다양한 스포츠 참여 양상에 대한 모든 분야에서의 노력과 관심이 무엇보다도 필요한 시기다. 그 무엇과 대체할 수 없는 스포츠는 또 한 번의 변화를 경험할 것이다. ☞

글을 쓴 한승진은 스포츠 여가산업을 연구하고 있으며 스포츠를 통한 사회 공헌에 누구보다 관심이 많은 사람이다. 2015년부터 을지대학교 스포츠아웃도어학과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으며, 다양한 연구 사업에 책임자로 참여하고 있다. 앞으로 스포츠를 통한 사회 공헌 사업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자 지금도 열심히 연구하고 가르친다.



희망

모두의 스포츠

2022년 2월 11일부터 스포츠기본법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 모든 국민이 스포츠 및 신체 활동에서 차별받지 않고 스포츠에 참여하고 향유할 권리가 있다는, 즉 모두의 스포츠를 법은 이야기한다. 특정 개인이나 집단의 전유물이 아닌 모두가 차명하고 즐기는 스포츠를 실현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할까.

스포츠는 평등한가

2021년 5월 발표된 110개의 국정과제 중 60번째 과제는 '모두를 위한 스포츠, 촘촘한 스포츠 복지 실현'이다. 여기서 모두를 위한 스포츠라는 단어는 낯선 표현이 아니다. 지난 2019년 스포츠혁신위원회는 4차 권고에서 스포츠기본법 제정을 통해 모두를 위한 스포츠 패러다임의 기반을 마련할 것을 이야기했다. 더 거슬러 올라가면 유네스코와 국제올림픽위원회의 헌장 역시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스포츠를 할 권

리를 이야기하고 있다. 그럼에도 이것이 국정과제로 다시 모두의 스포츠가 이야기된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사회에서 스포츠가 평등한 권리로 보장되지 못함을 의미한다. 2019년 심석희 선수의 용기 있는 폭로로 시작되어 이어졌던 스포츠 미투는 체육계에 만연한 성차별의 현실을 여실히 드러냈다. 최근까지도 골프클럽에서 정회원 자격을 남성으로만 한정하고 있어 국가인권위원회가 시정권고를 했다.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의 '2020 체육인 실태 조사'에서 남성 지도자가 69.6%로 여성 지도자 44.3%보다 25.3%p나 높은 현실은 이러한 구조적 차별이 어디에서 기인한 것인지를 짐작하게 한다. 스포츠에서의 차별은 성별만을 이유로 발생하지 않는다.

2019년 문화체육관광부 조사에 따르면 비장애인의 생활체육 참여율은 66.6%이다. 장애인은 생활체육 참여율이 24.9%로 나타났다. 이주민들은 언어와 문화적 장벽으로 스포츠 참여에서 어려움을 겪는다. 2018년 동대문구와 시설관리공단인 여성성소수자 생활체육대회에 대해 성소수자 행사라는 이유만으로 체육관 대관을 취소했던 일은 공공기관의 성소수자 차별의 전형적인 사례로 남았다. 스포츠는 인권이다. 과거 엘리트주의, 전문 운동인의 영역으로만 이야기되던 것이 인간의 자연스러운 신체 활동이자 누구나 참여하고 즐기는 활동으로 스포츠 패러다임이 변화하는 지금, 인권으로서의 스포츠는 더 이상 낯선 개념이 아니다. 인권의 핵심 가치인 개인의 존엄과 평등이 보장될 수 있어야

한다. 모두의 스포츠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핵심 과제다.

함께 즐기고, 누구도 배제되지 않기 위해

이 글을 쓰는 2022년 12월, 전 세계는 한창 2022 카타르 월드컵으로 화제다. 수많은 사람이 각자의 방식으로 축구를 즐기는 가운데 월드컵에서의 소수자 배제에 대한 문제 제기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 국제축구연맹(FIFA)은 다양성과 반차별 정책을 두고 시합에서의 모든 차별을 없애야 할 책임을 강조하고 있다. 그럼에도 2022 카타르 월드컵에서는 성소수자 인권을 나타내는 무지개 상징을 한 관객들이 입장을 거부당하는 일들이 발생했다. 나아가 경기장 건설 과정에서 발생한 이주 노동자의 사망사고 앞에서 월드컵이 정말 세계인의 축제인지 의문을 던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모든 사람이 동등하게 스포츠를 즐기 못하는 것은 비단 국제경기에서만 문제가 아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조사에 따르면 지난 2020년 기준 공공체육시설 중 장애인 체육 활동이 가능한 시설은 84%이나 최근 1년간 공공체육시설 이용객 대비 장애인 이용객은 단 5.3%에 불과했다. 이같이 저조한 이용률은 공공체육시설에서 장애인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거의 운영하지 않기 때문이다. 모든 국민이 생활체육에 있어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있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생활체육진흥법 규정이 무색하게, 여전히 누군가는 생활체육에서도

배제를 경험하고 있다. 때로는 주최 측의 정책이나 시설이 아닌 사회 전반의 차별적 구조가 스포츠에서의 차별을 만들기도 한다. 가령, 여성 청소년을 두 집단으로 나누어 한 집단에는 자신이 일상에서 흔히 만날 수 있는 동성의 교사, 선배, 동급생이 체육 활동에서 기량을 나타내는 모습을 꾸준히 관찰하게 하고, 다른 집단에는 미디어를 통해 날씬한 몸매를 가진 여성이 관능적인 포즈로 운동하는 모습을 관찰하게 한 연구가 있다.

후자의 그룹은 체육에 대한 관심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들에 대한 사회 일반의 외모 평가, 몸에 대한 평가가 운동 참여에도 영향을 준 것이다. 이 사례는 모두의 스포츠를 실현하기 위한 과제가 사회 전반에서 차별을 없애기 위한 실천과 함께 가야 할 문제임을 보여준다.

모두의 스포츠, 상상을 멈추지 않기

보는 스포츠에서 하는 스포츠, 즐기는 스포츠로 사람들의 인식과 관점이 점차 확대되고 있지만 그럼에도 계속해서 발생하는 차별 사례들은 모두의 스포츠를 위한 논의와 함께 갈 길이 많이 남았음을 보여준다. 이를 위해 국가와 공공기관, 스포츠 관련 단체에 정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고 꾸준히 목소리를 내는 것은 시민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이다. 한편, 개인적으로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상상력을 멈추지 않는 것이다.

모두의 스포츠라는 말을 들었을 때 누군가는 그것이 가능한가 하는 질문을 던질

“
인권의 핵심 가치인
개인의 존엄과 평등이
보장될 수 있어야 한다.
모두의 스포츠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핵심 과제다
”

수도 있다. 경쟁과 공정성이라는 스포츠의 한 요소를 고려한다면 서로 다른 신체 능력과 조건을 가진 사람들이 같은 조건으로 어울리는 모습을 상상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 하지만 이는 결코 불가능한 상상이 아니다. 이미 성별, 성적 지향, 장애, 인종에 따른 구분과 배제 없이 모두가 함께 즐기고, 보고, 참여하는 스포츠를 만들기 위한 시도가 여러 곳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필자가 2018년부터 꾸준히 기획하고 참여하고 있는 여성과 성소수자 누구나 평등하게 참여하는 생활체육대회인 퀴어여성게임즈가 한 사례다. 그렇기에 스포츠가 인권이라는 당연한 명제를 현실 속에서 실현하기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더 많은 상상과 실천이 이어지기를 바란다. 그렇게 할 때 모두의 스포츠는 미완의 과제가 아닌 실제로 달성할 수 있고, 달성된 성과로 우리 곁에 다가올 것이다. ✨

글을 쓴 박한희는 성평등과 성소수자 인권을 실현하기 위한 단체인 퀴어여성네트워크에서 활동하고 있다. 누구나 성별,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에 따른 차별 없이 즐길 수 있는 자리인 퀴어여성게임즈를 매년 기획하고 실행해 오고 있다.



‘학교체육을 부탁해’는 새로운 아이디어로 체육수업을 알차게 꾸려가고 있는 체육교사의 수업 소개 코너입니다.

지속가능한 건강활동, 롱텀(Long-Term) 프로젝트

건강과 체육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다. 그러나 학교 현장에서는 이러한 건강 영역이 다소 소외되고 있다.

매년 해야 하는 학생건강체력평가(PAPS) 측정을 위해 단기간 지도될 뿐이다. 이는 건강활동이 힘들고 재미없다는 학생들의 인식을 더욱 강화한다. 학창 시절 자신의 건강 체력을 위해 스스로 노력하는 과정은 평생 건강에 있어 중요하다.

건강활동은 지금과는 달리 더 의미 있게 진행되어야 한다.



▶ 이근원 선생
유튜브 채널 <근지라>



뜻하지 않은 영향력

“그냥 뛰고 싶었어요.” 영화 <포레스트검프> 주인공인 검프는 목적도 끝도 없는 달리기를 시작한다. 3년 2개월을 하고 14일 16시간을 달렸다. 장발이 된 머리와 뒤엉킨 긴 수염은 그가 얼마나 긴 세월 달리기만 했는지 보여준다. 더욱 흥미로운 장면도 나온다. 검프 뒤에서 같이 뛰는 추종자가 늘더니 거의 백 명 남짓의 무리가 된 것이다. 그는 단지 뛰고 싶어서 달렸을 뿐인데 말이다. 검프는 수많은 사람을 뒤로한 채 달리기를 멈춘다. 피곤해서 집에 가야겠다는 것이었다.

신규 발령받은 첫 학교에 아이언맨(Iron Man) 과학 선생이 있었다. 50대 중후반의 나이에도 매년 철인삼종경기대회에 출전하고, 아이언맨 코스(수영 3.8km, 사이클 180km, 달리기 42km, 제한 시간 17시간)도 완주한다. 내가 아는 50대 선생님 중 가장 강한 선생님이 아닐까 싶다. 아이언맨 선생은 자전거로 출근한 후 매번 운동장을 달렸다. 혼자 달렸던 처음과 달리 함께 뛰는 학생들이 점차 늘었다. 아침에 학생들이 모이기 시작하면서 문화가 형성되었다는 것이다. 나 역시도 그 선생을 보며 자전거 출근을 시작했다.

핑 먹고 알 먹고

이런 경험들이 내 인상에 강하게 남아있을까, 두 번째 학교에서 나는 새로운 도전을 했다. 매일 점심시간, 운동장 구석에 행하



설렘했던 철봉장이 점심시간이면 북적거린다



근지라 학교생활 중학생 철봉 에어워크[BTS-Butter] | 철봉버터-BarTS | Bar Airwalk | butter dance cover

가요에 맞춰 철봉 안무를 창작하기도 했다

게 있는 철봉과 평행봉에서 15분 운동을 하는 것이다. 초기 목적은 나의 체력과 건강관리였다. 어차피 해야 할 운동인데 막간을 이용하는 습관을 갖자는 생각이었다. 한편으로는 아이언맨 선생의 사례처럼 학생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기대했다. 내 운동에 집중하되 함께하는 학생들이 생긴다면 가르쳐 주면서 말이다. 첫 며칠은 쓸쓸히 운동했다. 4일 차쯤 되었을까, 1학년 학생 두 명이 기웃기웃하더니 “선생님 뭐 하세요?”라고 물었다. 나를 따라 철봉에 매달려 턱걸이를 시도하며 어떻게 하냐고 물었다. 다음날 점심시간이 되자 그 학생들이 친구들을 데리고 왔다. 턱걸이할 줄 아냐며 서로 도전해본다. 그 뒤로 학생들은 매번 왔고, 2, 3학년 학생들도 와서 턱걸이 실력을 뽐낸다. 여학생들도 모이기 시작하더니 매달리기 시합을 했다. 꾸준히 참여하는 학생들에게 15분 운동 루틴을 가르쳐 줬다. 점심시간, 학생들로 붐비는 철봉의 광경이 몹시 뿌듯했다. 한 달, 두 달, 세 달이 지났고, 몸에 근육이 많이 붙은 만큼, 아니 그 이상으로 학생들의 변화를 확인했다.

턱걸이를 하나도 못했던 학생이 10개까지 해냈다. 10초도 못 매달렸던 한 여학생은 얇은 굵기의 밴드를 활용해 철봉 위를 처음으로 맛볼 수 있었다. 체력적인 변화와 더불어 학생들이 정서적으로도 변화했다는 것을 느꼈다. 자신감이 넘쳐 보였고, 밝아졌다. 점심시간, 내 운동을 하면서 학생들을 성장시켰다. 핑 먹고 알 먹고,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도랑 치고 가재 잡는 것이 이런 것이 아닐까?

건강활동 ‘롱텀(Long-Term) 프로젝트’

점심시간 자발적 철봉 클럽을 하면서 내가 느낀 것이 3가지가 있다. 첫 번째로는 생각보다 아이들이 철봉이나 평행봉을 좋아한다는 것이었다. 어딘가에 매달리거나 올라가는 것이 기본적인 움직임에 대한 욕구라 흥미를 유발하고, 자신의 힘으로 몸을 들어 올리거나 버틸 수 있다는 유능감을 맛보면서 더욱 빠지는 것 같았다. 단지 제대로 해 볼 기회가 없었을 뿐이다.

두 번째로는 길지 않은 시간을 할애한 꾸준한 막간 운동의 힘이 다. 부담스럽지 않은 15분 내외의 운동만으로도 장기간 반복했을 때 큰 효과가 있었다. 체력은 당연지사, 건강한 생활 습관을 만드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었다. 세 번째로는 롤모델의 효과이다. 학생들은 매일 운동하는 선생님을 보면서, 근육이 탄탄해지고 있는 선배들과 친구들을 보면서 운동에 참여하기 시작했다. 긍정적인 경험의 결과로 다음 해 철봉 운동을 3학년 교육과정과 평가에 포함시켰다. ‘롱텀(Long-Term) 프로젝트’다. ‘롱텀’은 철봉 운동을 지도하는 기간을 말한다. 건강 영역을 짧은 차시에 집중해서 장기간 할애하는 것은 건강활동이 힘들고 재미 없다는 인식을 강화한다. 현장에서 학생건강체력평가(PAPS) 측정을 위해 단기간 집중적으로 지도하는 경향이 이러한 상황을 초래

한다. 그래서 지도 기간을 한 학기로 잡고 막간 운동으로 자발적 성장을 유도했다. 체육수업 시수에서 철봉 운동을 하는 시수는 몇 차시 되지 않는다. 운동 방법과 평가 방법에 대한 설명, 그리고 형성 평가나 총괄 평가에만 수업에 할애할 뿐이지 학생들의 막간(점심시간, 아침 시간, 쉬는 시간 등)에 의존한다. 롱텀의 또 다른 의미는 ‘평생 운동’이다. 건강활동은 현장에서 다소 소외된다. 물론 코로나 팬데믹으로 잠깐이나마 위상이 높아졌지만 전통적 스포츠(축구, 농구, 배구 등 경쟁 영역)가 초강세를 이룬다. 우리가 노후까지 평생 향유하는 운동은 대부분이 건강활동(조깅, 자전거, 맨몸운동 등)임에도 말이다. 학창 시절 자신의 건강 체력을 위해 스스로 노력하는 과정은 필수다. 평생 자신의 건강을 관리하는 근원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나의 롱텀 프로젝트는 시작됐다.

건강활동, 어떻게 동기 부여할 것인가?

지금까지의 내용을 살펴보면 분명 이러한 의문점이 들 수 있을 것이다. ‘과연 얼마나 많은 학생이 스스로 건강활동에 참여할까?’ 나 역시도 이와 같은 고민을 했고, 다음의 운영 전략을 사용했다. 철봉 운동을 교육 과정으로 운영했을 당시 우리 학교 3학년 학생의 평균적인 상체 근력은 주위 어느 학교보다 뛰어났을 것이라고 자부한다. 아쉽게도 이후에 악력 수시평가를 하지 않아 정확히 증명하지 못했지만 나와 함께 철봉 에어워크 하는 학생들 영상이 이를 방증할 수 없을가?(중랑구청장 신체활동 공모전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반면, 다른 학교 학생보다 평균적으로 상체 근력이 강하지 않아도 실망하지 않을 것이다. 이 경험이 학생들에게 안겨준 가장 중요한 것은 건강 체력을 스스로 기를 수 있다는 자신감과 언제든지

실행할 수 있는 역량이기 때문이다. 철봉 운동의 교육 과정 경험으로 얘기를 했지만 다른 건강활동으로도 위 전략을 적용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학생들과 다시 현장에서 마주할 때 나는 또 다른 롱텀 프로젝트를 해볼 것이다. 첫 체육 시간 학생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면서 말이다.

“애들아, 올해 선생님과 함께할 장기 프로젝트가 하나 있어. 바로 달리기야. 못해도 괜찮아. 올해를 내 인생에서 제일 많이 뛰어보는 한 해로 만드는 거야!”

글을 쓴 이근원은 9년 차 중등 체육교사다. 작년까지 면목중학교에서 근무했고, 올해부터 서울대학교에 석사과정 파견을 와서 스포츠교육학을 공부한다. 서울시교육청 중등직무 연수 강사로 위촉되어 온라인 체육수업을 주제로 강의했었고 혼합 수업 사례집 개발에 참여하기도 했다. 글과 관련된 영상은 유튜브 채널 <근지라>에서 볼 수 있다.

이근원샘의 건강활동 운영 전략

Strategy 1

롤모델 전략

롤모델은 선생님 자신이 될 수도 있고 학생들이나 다른 일반인이 될 수도 있다. 선생님이 롤모델이 된다는 것은 건강을 위해 운동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동료 학생을 롤모델로 보여주는 방법도 효과가 있었다. 턱걸이를 못했던 학생이 꾸준한 노력 끝에 여러 개 성공한 영상을 보여주는 것이다. 체력에 자신 없는 학생들도 대리 성공 경험을 통해 도전심이 생겼고, 체력 좋은 학생들에게는 경쟁심을 불러일으켰다.

Strategy 2

과정 중심 평가

학생들의 건강체력이 얼마나 향상했는지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그들이 얼마나 자신의 체력을 위해 노력했는지 과정을 확인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나는 ‘플립그리드(Flipgrid)’ 앱을 활용했다. 영상을 만들고 공유하며 토론하는 무료 앱으로, 사용법이 간단해 온라인 학습에도 자주 활용된다. 나는 학생들의 누적되는 운동에 대해 피드백을 준다. 운동 과정이 기록으로 남기 때문에 평가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영상 평가는 실천을 위한 하나의 수단적 장치지만, 결국 학생들이 자신의 변화를 두 눈으로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지속적인 내적 동기를 불러일으킨다.

Strategy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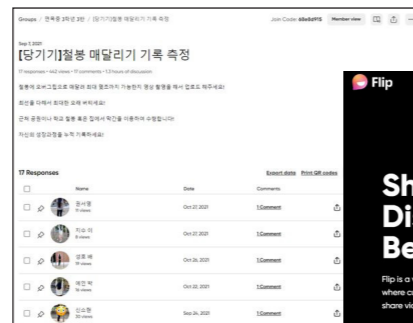
단계적 성취 기준

“너희들의 목표는 턱걸이를 5개 성공하는 거야!”라고 일괄적 기준을 정해 놓고 말한다면 중간에 포기하는 학생들은 매우 많아질 것이다. 그렇다고 각자의 기준에 맞춰 “너희들의 목표는 지금의 나보다 더 성장하는 거야!”라고 얘기하는 것은 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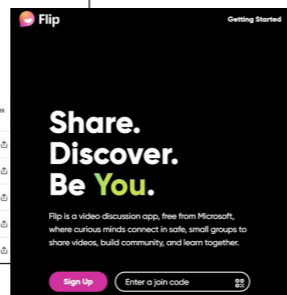
준이 없어서 목표 의식이 떨어지게 될 것이다. 기준은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제시해주는 것이 좋다. 단, 모든 학생이 자신만의 목표를 가질 수 있도록 기준을 세부화해서 말이다.

남자					
난이도	비껴턱걸이	밴드보조(Lev3) 턱걸이	밴드보조(Lev1) 턱걸이	턱걸이	중량(5kg) 턱걸이
A				10개~	6개~
B			10개~	6개~9개	3개~5개
C		10개~	6개~9개	2개~5개	
D	10개~	6개~9개	2개~5개		
E	6개~9개	2개~5개			
F	2개~5개				
E	모든 기회 기준 미달 시				

여자					
난이도	매달리기(데드헵)	비껴턱걸이	밴드보조(Lev4) 턱걸이	밴드보조(Lev2) 턱걸이	턱걸이
A				8개~	1개
B			8개~	5개~7개	
C		8개~	5개~7개	2개~4개	
D	15초~	5개~7개	2개~4개		
E	5초~15초	2개~4개			
F	5초 이하				
E	모든 기회 기준 미달 시				



플립그리드를 활용한 과정 중심 평가





탁구의 메카(Mecca)로 유명한 금천구다. 금천스포츠클럽은 서울에 소재한 여느 공공스포츠클럽과 달리 탁구 종목 하나에 집중한다. 종목은 1개에 불과하지만 생활체육부터 학교체육, 전문체육까지 탄탄한 커리큘럼의 프로그램으로 만 7세부터 70대에 이르는 성인까지 폭넓은 연령대의 주민들이 방문하고 있다.

탁구 종목 중점 운영

금천스포츠클럽은 저렴한 비용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러한 운영 방식은 금천구 지역사회 소외 계층 주민들에게 경제적 부담 없이 스포츠를 즐길 기회를 제공한다. 특히 청소년층에게 우리나라 입시 위주의 교육에서 받는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정신적·신체적 건강 증진은 물론 전문체육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한다. 또 스포츠에서 소외되기 쉬운 노년층에게 한 종목 프로그램은 스포츠를 취미로 즐길 수 있는 계기가 됐다. 여기에는 금천스포츠클럽이 스포츠에서 소외되는 사람이 없는 지역사회를 희망하는 마음이 담겼다. 금천스포츠클럽은 현재 탁구 종목을 중점적으로 운영

한다. 종목은 한 개지만 초등학교 클럽반, 초등학교 선수반, 청소년 클럽반, 성인반으로 운영해 수준별 프로그램이 이뤄진다. 특히 성인반을 제외한 나머지 반은 10명 내 소수의 수강생으로 구성되어 있어 회원 개개인을 집중적으로 강습한다. 강사진은 모두 은퇴 선수 출신 혹은 지도자 및 교사자격증을 갖춘 10년 이상 지도 경력자다. 탁구 종목을 중점으로 운영하고 뛰어난 경력자들로 이뤄진 강사단 운영이 빛을 발한 것일까. 금천스포츠클럽에서 처음 탁구를 접한 초등학생 두 명(영남초교 1명, 미성초교 1명)은 현재 학교 운동부에서 선수로 활동한다. 이처럼 금천스포츠클럽은 생활체육부터 학교체육, 전문체육까지 모두 아우른다.

COMIC BOOK

“ 탁구 한 종목에 집중해 어느 곳보다도 전문적인 프로그램으로 미래 탁구 꿈나무들을 키우고 있습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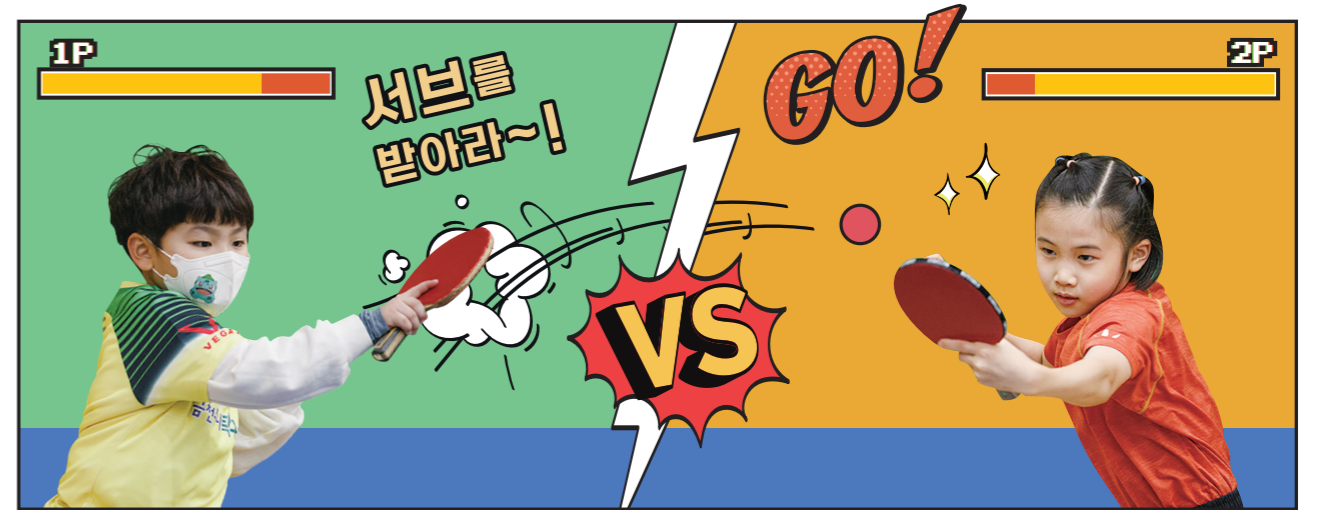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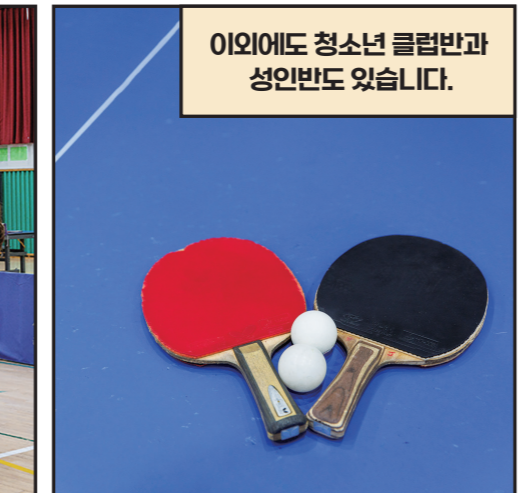


지역사회와 협력 운영

금천스포츠클럽은 지역사회와 밀접하게 닿아 있다. 대표적으로 지역의 체육 시설을 이용한다는 점이다. 초등학교 클럽반과 선수반은 지역에 있는 영남초등학교 체육관에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이때 탁구 종목에 두각을 나타내거나 전문선수로 활동하고자 하는 학생은 학교 탁구부를 운영하는 영남초등학교와 금천초등학교, 미성초등학교와 연계해 전문적으로 선수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돕는다. 중·고등학생이 속한 청소년 클럽반 프로그램은 금빛나래학교 체육실에서 이뤄진다. 약 30명의 수강생이 있는 성인반은 금천구 지자체에서 실내 탁구장을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다. 오전

에는 주부 및 실버반, 저녁에는 직장인반이 진행된다. 프로그램 수강생이 아니어도 금천구 지역주민이라면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커뮤니티 공간도 제공한다. 금천스포츠클럽은 금빛나래탁구후원회와 금천구 초·중·고·실업 탁구팀과의 연계로 취미부터 전문 선수까지 실력이 다양한 대상자들에게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을 갖췄다. 앞으로 금천스포츠클럽은 금빛나래탁구후원회와 금천구 실업팀과의 연계로 지도자를 추가 확보할 예정이다. 더불어 각 학교 방과 후 및 주말 스포츠반 프로그램을 통해 초·중·고등학생을 더 모집할 예정이며 성인 및 노인부 역시 지역 문화체육센터와 연계해 활성화할 계획이다. ☘

**금천스포츠클럽
활기차고 보람찬 하루!**
재밌는 스포츠 생활 속으로 들어가보자~



'스포츠 業UP'은 막내 입사자의 눈을 통해 본 공공체육(유관)기관 직업 소개 칼럼입니다.

박은선
경영기획부 총무회계팀 주임


서성진
스포츠진흥부 여가스포츠팀 주임

박은선 경영기획부 총무회계팀 주임 & 서성진 스포츠진흥부 여가스포츠팀 주임

서울특별시체육회, 대한민국 대표 도시 서울에서 스포츠를 외치다

우리나라엔 지역주민의 건강과 체육 활성화를 위해 힘쓰는 지방체육회가 있다. 대한민국 대표 도시 서울에는 25개 자치구 체육회가 있으며 이들과 협력해 서울을 대한민국 스포츠 리더로 끌어나가는 곳이 있으니 바로 '서울특별시체육회'다. 신입 주임들에게 서울 체육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안녕하세요. 독자분들께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박은선 주임 · 2021년에 입사해 경영기획부 총무회계팀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총무회계팀은 서울특별시체육회의 전반적인 경제 살림을 담당하는 부서입니다. 많은 업무가 있는데 그중 저는 대한체육회 보조금과 우리 체육회 자체 회비 지출 업무, 연말정산과 예산 업무 등을 맡고 있습니다.
서성진 주임 · 2022년에 입사해 스포츠진흥부 여가스포츠팀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여가스포츠팀은 생활체육진흥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합니다. 저는 그중 각종 대회 개최와 전통종목강습회, 해달맞이 생활체육교실, 청소년스포츠안전교실 사업을 맡았습니다.

 서울특별시체육회
SEOUL SPORTS COUNCIL - KOREA SPORT LEADER
서울특별시체육회는 1953년 2월에 설립돼 서울시민의 건강과 체력증진, 우수 경기자 양성 등을 목적으로 학교체육, 전문체육, 생활체육을 관장하고 있다.



서울특별시체육회는 어떤 곳인가요?

박은선 주임 ·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 서울시에서 이뤄지는 학교체육, 생활체육 등 전반적인 체육 관련 사업들을 총괄해서 추진하는 곳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중랑구체육회, 종로구체육회와 같은 서울 소속 자치구체육회와 배구협회 등 다양한 회원종목단체도 관리합니다.
서성진 주임 · 대한민국의 스포츠 리더가 곧 서울특별시체육회 아닐까요? 제가 소속되어 있는 서울특별시체육회는 시민들의 생활 체육 활성화를 위해 힘쓰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서울시 소속 선수들을 위한 사업을 통해 전문체육의 기반도 튼튼하게 다지고 있고요. 이처럼 대한민국 대표 도시인 서울의 체육은 물론 대한민국 스포츠를 끌어나가는 기관입니다.

서울특별시체육회에 입사하신 계기가 무엇인가요?

박은선 주임 · 현재 체육회가 있는 이곳 근처에서 학창 시절을 보냈어요. 오가며 체육회 건물이 눈에 띄었죠. 알게 모르게 '서울특별시체육회'가 머릿속에 늘 자리하고 있었나 봐요.(웃음) 결정적으로는 제가 체육학과생이었던지라 마치 당연하다는 듯 자연스럽게 입사까지 이어졌어요.
서성진 주임 · 대외 활동이나 체육 혹은 진로를 주제로 한 강연을 꽤 찾아다녔어요. 많은 이야기를 듣고, 다양한 경험을 하면서 어느 순간 '스포츠행정가'를 준비해 보자는 결심이 섰죠. 현장과 같이 스포츠의 최일선에서 일하는 것도 분명 보람차겠지만 현장 뒤에서 행정적으로 지원하는 일에 더 큰 매력을 느껴서 이곳에 입사하게 됐습니다.

채용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박은선 주임 · 서류 전형이 가장 첫 단계입니다. 5배수로 선발된 서류 전형 합격자만 필기시험과 인성 시험을 치르고, 면접 심사로 마무리됩니다.
서성진 주임 · 일반적인 회사 입사 절차와 비슷합니다. 조금 다른 점이 있다면 아무래도 '필기시험'일 텐데요. 스포츠 행정 사업을

추진하는 체육계 기관인 만큼 행정학과 스포츠 상식이 포함된 일반 상식 등 관련 이슈들에 대한 시험을 말합니다.

입사를 위해 특별히 준비하신 것이 있나요?

박은선 주임 · 내가 일하고 싶은 곳이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 알아야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서울특별시체육회가 어떤 곳이고, 어떤 사업들을 추진하는지 모두 파악할 수 있는 곳에서 '서울특별시체육회'에 대해 공부했죠. 대표 홈페이지나 블로그가 큰 도움이 됐어요.
서성진 주임 · 사실 저는 이곳에 입사하기 전, 다른 지역의 체육회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어요. 대학교를 졸업할 때 마침 행정 업무 직렬의 채용 공고가 났어요. 그곳에서 일하면서 더 큰 곳에서 일하고 싶다는 포부로 서울까지 오게 된 거예요. 저처럼 비슷한 분야의 기관에서 업무 경험을 쌓는 것도 도움이 될 거예요.

근무하면서 가장 보람이 있었던 때는 언제인가요?

박은선 주임 · “총무회계팀의 일은 해도 티가 안 나지만, 안 하면 티가 확 나는 팀이다.” 사업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현장 업무를 보거나 행사 진행을 하지는 않지만 체육회 예산 지출에 관한 살림을 총괄하는 팀이죠. 우리 체육회에서 하는 사업들이 모두 영향력이 있는 사업이란 걸 알기 때문에 보람이 될 수 있어서 뿌듯합니다.
서성진 주임 · 교실 사업이나 강습회 사업의 경우 담당자로서 현장 점검 출장을 갈 때가 있어요. 그때마다 참여자들이 민원을 넣어요. “이 프로그램은 안 끝났으면 좋겠어요.”, “기간을 연장하면 안 될까요?”라는 기분 좋은 민원이요. 현장 반응이 긍정적일 때 아주 보람잡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체육회 입사를 꿈꾸는 이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박은선 주임 · 체육학을 전공한 사람만 지원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체육을 좋아하고, 전문체육과 생활체육 등 스포츠 다방면에 관심이 많은 분이라면 비전공자도 입사해서 충분히 제 역할을 해낼 수 있어요. 그러니 많은 분이 도전하셔서 동료로 함께 일했으면 좋겠어요.
서성진 주임 · 우리 체육회 홈페이지는 물론이고 채용이나 유사 기관 사이트를 통해서 채용 동향을 알아보는 것도 중요해요. 채용 동향을 파악하면 '어떤 것을 준비하면 되겠구나'라는 걸 유추해서 다른 사람들보다 철저하게 준비하고 대비할 수 있어요. ☎

'스포츠 데이터랩'은 빅데이터를 통한 스포츠산업계의 변화와 미래에 대해 전망해보고자 마련한 코너입니다.

똑똑해진 인공지능 솔루션이 심판인 시대

2022 카타르 월드컵 열기가 지구촌을 뒤덮었던 지난 11월과 12월, 월드컵 무대에 인공지능 심판이 선을 보였다. 12대의 오프사이드 판별 전용 카메라를 설치해 선수들의 움직임을 머리, 어깨 등 29개 포인트로 세분화하여 파악했다. 추가로 축구공에 초당 500회 정도 데이터 측정이 가능한 센서가 삽입되어 실시간으로 공의 위치를 추적했다. 엄청난 데이터들을 실시간으로 통합해 오프사이드 여부를 판별하는 카메라는 오프사이드 관련 심판 판정에 대한 논란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고 있다.



인공지능 스포츠 경기 판정 솔루션의 등장

심판의 잘못된 판정으로 스포츠 경기의 승패가 바뀌는 경우가 있다. 축구의 경우 1986년 멕시코 월드컵 8강전에서 아르헨티나의 디에고 마라도나가 손을 사용해 골을 넣는 장면이 미디어에 노출됐다. '신의 손 마라도나'라는 별명이 생길 정도로 논란이 많았지만 당시 시대적 여건과 심판의 판단을 존중할 수밖에 없어 결국 골로 인정되어 아르헨티나의 2대1 승리가 반복되지 않았다. 이렇듯 심판의 잘못된 판정으로 경기의 승패가 바뀔 수 있다. 심판 입장에서 인공지능 경기 판정 솔루션의 등장 배경을 생각해 보자. 심판들의 판정에 대한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심판이라는 직업은 스트레스가 많을 수밖에 없다. 작은 실수 하나가 엄청난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심판들이 잘못된 결정을 하게 될 때도 있고, 이는 심판의 정신적 건강에 영향을 미친다. 심판도 인간이기에 잘나에 벌어지는 상황을 정확히 판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또한 관중이나 시청자의 시각과 관점에 따라 여러 논란이 존재할 수 있다. 이러한 부분을 최소화하는 것이 인공지능 경기 판정 솔루션이다. 카메라 기술과 센싱(Sensing) 기술, 5G 네트워크 기술 등의 발전으로 과거에는 상상만 했던 일들이 실현되고 있다. 더불어 시뮬레이션할 수 있는 데이터도 확보되면서 실시간 사용이 가능할 정도의 정확성을 갖게 됐다.



1986년 멕시코 월드컵 아르헨티나-잉글랜드의 8강전 당시 디에고 마라도나(왼쪽)의 '신의 손' 논란을 불러일으킨 장면



어디서, 어떻게 적용되나?

육상과 수영 등 기록 경기에서 디지털 타이밍 계측 솔루션이 활용되고 있다. 가장 고전적인 스포츠 경기 판정 솔루션이라고 할 수 있다. 초당 3~4번 공격이 오갈 수 있는 펜싱은 인간의 눈으로 어느 선수가 먼저 공격했는지 파악하기 힘들다. 따라서 1936년 베를린 올림픽부터 압력 센서를 이용한 경기 판정 솔루션을 사용하고 있다. 태권도도 심판 판정 논란이 많아 올림픽 퇴출론까지 제기되었다. 이에 2011년부터 전자호구 시스템을 도입해 자동 채점으로 공정성을 담보하고 있다.

2006년 US오픈에서 심판의 보조 도구로 ‘호크아이’ 비디오 판독 시스템이 도입됐다. 이후 세계남자프로테니스협회에서 개최하는 2017년 밀라노 국제대회에서는 호크아이 라이브 솔루션이 선심을 대체해 심판을 봤다. 테니스에는 1명의 주심과 9명의 선심이 경기 심판을 보는데 인공지능 심판이 적용되면서 선심이 필요 없어졌다. 즉, 심판 1명으로도 정확한 경기 운영이 가능해졌다. 2020년 US오픈 첫 번째 주에만 총 22만5,000개의 로봇 심판 판정을 내렸고 이 중 14개의 판정만 잘못됐다.

전 세계 축구 국가대표 경기 및 월드컵을 관장하는 국제축구연맹은 2018년부터 VAR(Video Assistant Referees)라는 비디오 판독 시스템을 공식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2022 카타르 월드컵 조별 예선 경기에서 일본을 2대1로 역전승을 만들어준 논란의 골은 VAR가 만들었다. 보는 각도에 따라 달리 보일 수 있는 상황에서 사람의 육안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것을 VAR가 잡아낸 것이다. 또한 반자동 오프사이드¹⁾ 판독 기술(Semi-Automated Offside Technology)을 2022 카타르 월드컵부터 공식 적용하고 있다. 12대의 전용 카메라, 축구공에 내장된 센서, 시간별, 빅데이터 결합을 통해 실시간으로 오프사이드 반칙을 판별하는 솔루션이다. 반자동이라고 이름 붙인 이유는 최종적인 결정은 심판이 하는 규정이 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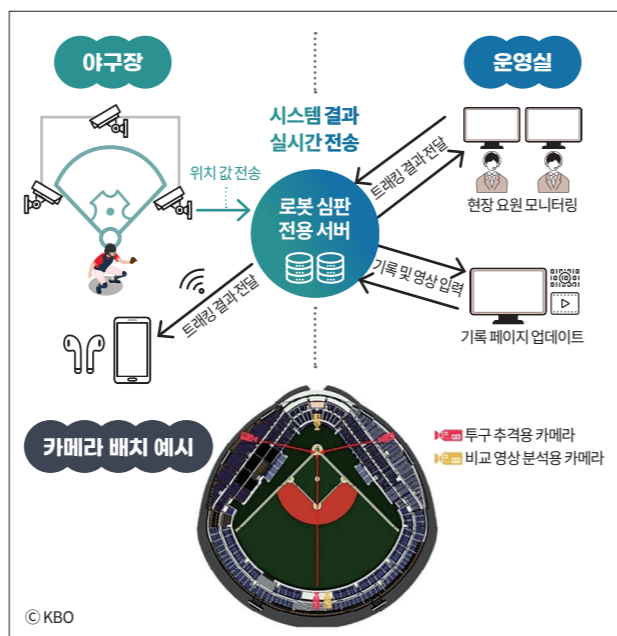
스트라이크와 볼에 대한 심판 판정 논란이 많은 야구에서도 로봇 심판이 활약하고 있다. 2020년부터 한국야구위원회에서 주관하는 프로야구 2부 리그인 퓨처스리그 경기에 처음으로 인공지능 로봇 심판이 도입됐다. 야구장에 설치된 카메라를 통해 투구한 공의 궤적을 추구해 실시간으로 위치 데이터를 통합 시스템



골라인 아웃으로 보이는 장면이지만 축구공에 삽입된 센서와 카메라 기술 등 결합된 시스템이 골라인 나가기 전에 문전 패스가 이루어진 것으로 판별했다



반자동 오프사이드 판독 기술로 선수들의 몸동작을 읽는다



야구 종목에서도 로봇 심판을 쉽게 볼 수 있다

1) 축구 경기 반칙 중 하나다. 공격수가 상대편 최종 두 번째 선수보다 상대편 골라인에 더 가까이 있고, 같은 팀 선수가 패스 또는 터치한 볼을 플레이하거나, 터치하여 플레이에 간섭했을 때 오프사이드가 된다.



에 전송한 후, 자동으로 구축된 기준값에 의거, 트래킹 데이터를 바탕으로 스트라이크 여부가 결정된다. 로봇 심판의 판단 결과는 주심에게 음성으로 전달된다. 결과를 들은 주심이 스트라이크 또는 볼을 선언하는 방식이다. 미국 프로야구에서도 산하 독립 리그와 트리플A 리그에서 인공지능 로봇 심판을 공식적으로 사용한다.

스포츠 경기 판정 솔루션의 논란과 미래

스포츠에 있어서 심판 역할에 대한 이슈는 늘 존재한다. 사람이 스포츠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사람이 심판을 함으로써 발생하는 오류도 스포츠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심판도 스포츠 경기의 일부라고 보는 것이다. 그러나 공정한 판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에는 이견이 없고, 국가 등 시시비비에 연루되지 않는 공정한 판정이 중요해지고 있다.

스포츠 경기의 흐름에 방해가 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한 팀이 분위기를 타서 파상적인 공격을 하고 있거나 반격의 기회가 오는 경우에 갑자기 VAR를 통해 이전 파울을 발견해서 경기를 중지시킨다면 관중이나 시청자 입장에서 화가 날 것이 자명하다. 2022 한일 월드컵 조별 예선전, 16강을 결정짓는 중요한 경기에서 심판이 페널티킥 반칙을 판정했는데 바로 앞서 경기 상황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 오프사이드로 VAR가 판정해 페널티킥이 취소됐다. 농구 종목도 가벼운 신체적 접촉이 어느 정도는 용인돼야 경기의 박진감이 넘칠 것이다. 그러나 인공지능 경기 판

정 솔루션의 발전으로 소소한 신체적 접촉까지 잡아내면 선수들의 플레이는 위축될 것이다. 이에 따라 재미없는 경기가 될 소지가 있다. 향후 스포츠 경기 맥락과 판정에 최소의 시간이 소요되도록 인공지능 기반 판정 솔루션이 발전될 것이다. 현재는 프로나 국가대표급 스포츠 경기에서만 활용하고 있는 인공지능 경기 판정 솔루션이 앞으로 아마추어로 확장될 것이고, 여러 종목으로도 전파될 것이다. 피겨스케이팅나 체조 등의 종목도 맨눈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회전 횟수와 착지 시의 스케이트 날과 발의 모양 등을 정확하게 판별할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스포츠 댄스, 리듬 체조 등 예술성을 평가하는 종목은 예술 점수에 대한 데이터가 축적된다면 가이드라인을 줄 수 있을 정도로 판정 솔루션이 발전할 것이다. 축구공에 센서가 삽입돼 초당 500개의 데이터를 보내는 시대이므로 이제는 데이터 수집 센서의 활용 대상과 범위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농구공이나 배구공은 기본이고, 조금 더 작은 핸드볼 공, 야구공에도 센서가 부착되는 시대가 온다면 다양하고 새로운 판정 솔루션이 나올 수 있다. 이제 스포츠 경기에서 판정의 공정성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시대가 성큼 다가왔다. ⚡

글을 쓴 오자왕은 스포츠산업 관련 지식과 인재의 허브인 서울대 스포츠산업연구센터에서 다양한 스포츠 분야 컨설팅을 진행하였다. 스포츠 가치를 창출하고 전달함으로써 보다 나은 미래를 만들자는 사명을 가지고 (주)스포츠인텔리전스를 운영 중이며 한국체육학회, 서울시체육회를 비롯해 여러 스포츠협회에서 위원으로 일하고 있다.

스포츠 메가 이벤트, 무엇이 문제인가?

스포츠 자체만으로 논쟁이 일어나지는 않는다. 자본과 정치 같은 '사회적인 것'이 붙음으로써 논쟁이 시작한다. 특히 국제 스포츠 경기, 소위 '스포츠 메가 이벤트(Sports mega-event)'라 불리는 대규모 경기에서 논쟁이 많이 일어난다. 자본과 미디어, 정치권력의 삼위일체가 붙어 작동하는 곳이다. 어쩔 수 없이 스포츠는 희생양이 된다. 중요한 건 두 가지. 첫째, 이들 삼위일체는 앞으로도 스포츠에 붙을 것이란 사실. 둘째, 그로 인해 스포츠 메가 이벤트의 지속가능성은 꾸준히 위협받으리란 사실.



“ 스포츠 메가 이벤트는 도시 인구를 관리하는 통치성의 한 양상으로 작동한다 ”

논쟁적인 스포츠 메가 이벤트 ①
예외 상태
올림픽과 월드컵 같은 초대형 이벤트를 '스포츠 메가 이벤트'라 부른다. 항상 논쟁을 달고 다니는 대회다. 개최 국가나 도시에 끼치는 영향이 엄청나기 때문이다. 그뿐만이 아니다. 글로벌 미디어의 관심도 대단하기에 전 세계에서 자본이 모인다. 이런 조건의 스포츠 메가 이벤트에서 논쟁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 어찌하면 더 초현실적이다. 올림픽 유치는 경제적인가? 월드컵 성적이 자국 스포츠 발전을 견인하는가? 아시안게임은 국가나 지역 홍보에 역할을 하는가? 올림픽에서 선수는 정치적 메시지를 내면 안 되는가? 열거하면 끝이 없다. 스포츠 메가 이벤트에는 가시성의 정치, 주목 경제, 이데올로기 장치, 대중 우민화 도구 등 많은 수식어가 붙는다. 올림픽 준비 과정에서 주민을 쫓아내며 강제 퇴거의 찬란한 역사를 쓰기 시작한 건 88 서울올림픽 때부터다. 이후 강제 퇴거의 역사는 지금까지 이어진다. 92년 바르셀로나올림픽 때는 경기장을 짓겠다고 민주익 지역 로마계 주민을 쫓아냈다. 96년 애틀랜타올림픽 때는 공공주택단지까지 경기장 시설로 대체되며 그곳에 살던 난민들이 '청소'됐다. 2000년 시드니올림픽에서는 2만5,000여 명의 난

민이 추방당했다. 2004년 아테네올림픽, 도시재생 프로젝트에 따른 난민 퇴거가 행해졌다. 이러한 '흑역사'는 2008년 베이징올림픽 때 정점을 찍는다. 경기장을 짓겠다고 자국민을 고문·구금·처형하며 무려 150만 명을 강제 퇴거시켰다. 이런 일이 2016년 리우올림픽과 2020년 도쿄올림픽 때도 일어났으니, 큰 이변이 없는 한 강제퇴거의 역사는 이어질 것이다. 과연 이게 어찌 가능했을까? 스포츠 메가 이벤트가 전쟁 상황 같은 '예외 상태(State of exception)'를 조성했기 때문이다. 도시 인구를 관리하는 근대적 통치성의 한 양상으로 작동한 것이다.

논쟁적인 스포츠 메가 이벤트 ②
스포츠위성
돈은 많은데 참 나쁜 아저씨가 동네에 있다. 아이들은 이 아저씨를 싫어하며 가까이 가려 하지 않았다. 그러자 아저씨는 거금을 들여 맛있는 것과 놀거리를 장만해 아이들을 유혹한다. '이 아저씨는 나쁜 사람이 아니란다.' 아이들은 맛난 것과 놀거리에 취해 아저씨가 나쁜 사람인 걸 잊기 시작한다. '그래, 이렇게 좋은 걸 베푸는데 나쁜 사람일 리 없어.' 아이들의 이성이 마비되며 명확한 판단을 할 수 없게 된다. 몇몇 아이가 이진 아니라고 정

바르셀로나 올림픽 개폐회식과 육상경기가 열릴 몬주의 주경기장. 이 경기장은 1번입구가 항상 개방돼 관광객들이 줄을 잇고 있다



“
전체주의 정권이 굶직한
스포츠 메가 이벤트를
유치하는 일도 스포츠워싱의
또 다른 양상이다
”



신 차리라고 채근해보지만 이미 아이들의 뇌(Brain)에서 아저씨의 나쁜 이미지는 깨끗이 세탁됐다(Washing). 일종의 ‘뺨과 서커스 효과’다. 아뽀싸, 그런데 스포츠도 이와 같은 세탁 기능을 한다. 스포츠 메가 이벤트가 지닌 세뇌 효과, 일명 ‘스포츠워싱(Sportswashing)’이다.

최근 사우디아라비아가 천문학적 돈으로 국가 이미지를 세탁하려는 게 대표적이다. 영국 프리미어 리그의 뉴캐슬팀 인수나 PGA(미국프로골프리그)와 경쟁할 LIV인비테이셔널 출범 등 스포츠 이벤트로 인권 탄압 국가 이미지를 세탁하려는 시도다. 그뿐인가. 중국, 카타르 등 전체주의 정권이 굶직한 스포츠 메가 이벤트를 유치하는 일도 스포츠워싱의 또 다른 양상이다. 하기가 스포츠워싱은 꽤 오래전 1936년 베를린올림픽 때부터 나치 정권이

해왔던지라 놀랄 일도 아니다. 문제는 돈 많은 ‘나쁜 놈’들의 이미지 세탁 시도가 최근 전방위적으로 ‘손쉽게’ 이루어진다는 점이다. 덴마크 코펜하겐대학교 아담 샤프 교수의 2022년 연구는 이런 사실을 잘 보여준다. 1990년부터 2024년까지 열린(혹은 열릴) 국제 스포츠 경기 개최지를 보니 전체주의 국가의 대회 유치 비율이 늘어나는 추세란다. 1990년대엔 10%에 불과했으나 2000년대 들어오며 40% 수준까지 증가한 것이다. 월드컵이나 올림픽 유치가 천문학적 비용을 요구하면 할수록 이러한 경향은 더 심해질 것이다. 왜 그럴까? 엄청난 돈이 들어갈 유치 신청이 국민·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재고될 민주적 국가나 지역과 달리 독재국가나 전체주의 국가에선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이다. 규모가 가져온 역설이다.

**논쟁적인 스포츠 메가 이벤트 ③
정치적 메시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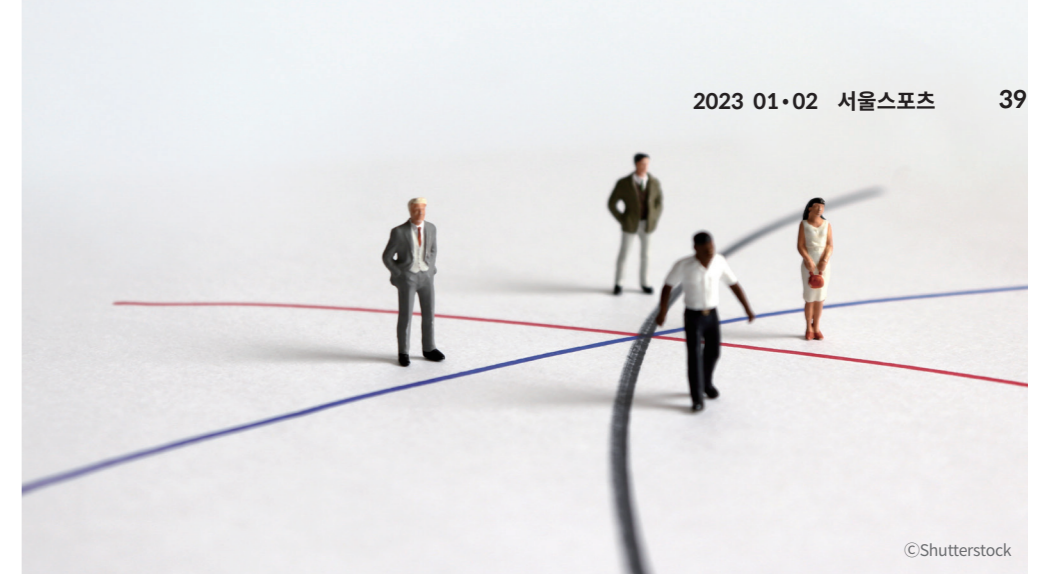
불편하지 않다면 거짓말이다. 어느 축구 선수가 골을 넣고 ‘인종차별하지 말라’는 메시지가 새겨진 셔츠를 카메라 앞에 들이민다. 어떤 마라톤 선수는 시상대 위에서 자기 팔을 겹쳐 X자를 그린다. 자국이 현재 독재 정권에 의해 탄압받고 있음을 알리려 목숨 걸고 한 시위다. 2022 카타르 월드컵 때는 동성애 관련 메시지(One Love)를 내고자 무지개가 그



중국의 인권 탄압 등의 이유로 미국, 영국 등의 국가가 외교적 보이콧을 선언했다



2020 도쿄올림픽을 앞둔 당시, 국내에서는 일본의 독도 표기 등 정치적 이슈를 문제 삼아 보이콧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았다



©Shutterstock

“
역사적으로
스포츠 메가 이벤트는
정치적 메시지가
격돌하는 장이었다
”

려진 완장을 차겠다는 걸 FIFA가 금지했다. ‘거기 차면 경교야!’ 전 세계인들의 눈이 모이다 보니 각자 사정이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든 메시지를 내려 애쓴다. 각자 사정을 이해는 하지만 불편한 것은 불편한 것이다. 스포츠를 즐기려 마음먹은 이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그거 웬만하면 다른 곳에서 하면 안 될까? 논란만 되지 큰 효과도 없어 보이던데, 스포츠와 정치는 분리되어야만 한다!
세계인의 눈이 집중된 대회에서 스포츠로 세계를 변화시켜 보겠다는 눈물겨운 노력을 왜 이해하지 못하는가? 1968년 멕시코올림픽 때 시상대 위에서 검은색 장갑을 낀 팔을 들고 국기를 외면한 사건의 여파를 알지 못하는가?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인에게 인종차별에 대한 경종을 울리지 않았는가? 스포츠 경기에서 국가 제창 시 한쪽 무릎을 꿇거나 승리 후 자축 행위를 정치적 메시지로 채우는 건 세계를 조금 더 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한 노력이 아니고 무엇이란 말인가? 중요한 이슈에 무지한 세계인들에게 문제를 알리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논쟁이야 당연히 일어나겠지. 하지만 논쟁이 어찌 기존의 불평 부당한 사회질서가 바뀌겠는가? 스포츠야말로 정치적 변화를 이끌 최고의 장소 아닌가?
역사적으로 스포츠 메가 이벤트는 정치적 메시지

가 격돌하는 장이었다. 전 세계적 주목도가 높아서 그렇다. 문제는 이런 행위를 어찌 받아들일지다. 국가대표로 나온 선수들이 자국 문제를 항의하는 일이 언뜻 한 개인의 시민적 의무처럼 보일 수 있으나 국가 지원으로 경기에 나와서 그 국가에 칼을 겨누는 것도 난센스다.

**스포츠 메가 이벤트,
이젠 지속가능성을 고민할 때**

정치권력이 탐하고, 자본의 먹잇감이 된 스포츠는 이제 자신의 지속가능성을 고민해야 한다. 아무리 경기장에서 정치적 메시지를 금지해도 선수들은 꾸준히 할 것이다. 올림픽은 평화의 축제지만 전쟁 국가나 독재 국가가 대회를 유치하는 일은 더욱 수월해질 것이다. 돈이 우선순위가 됐으니, 전 세계인의 탄소 배출을 늘리게 만드는 스포츠 메가 이벤트는 기후 위기의 최대 적이 됐다. 참으로 난감한 상황에 놓인 스포츠다.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까? 정답은 없으나 해답은 단순할 수 있다. 무엇이 스포츠 메가 이벤트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할까? 답이 가리키는 방향으로의 사결정을 할 수밖에. 문제는 그 지속가능성의 해법이 각기 다르다는 사실. 결국 힘 있는 자들에 의한 해법이 채택될 것이고 스포츠는 앞으로도 계속 논쟁거리가 될 것이다. 힘없는 나는 어찌할까. 관람 보이콧이라도 해야 하나. ✿

글을 쓴 남상우는 스포츠사회학자다. 현재 충남대학교 스포츠과학과에 근무 중이다. 이전에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에 잠시 머물며 스포츠클럽 정책을 담당했다. 국민 모두가 ‘운동하기 편한 나라’를 그리며 논문 쓰고 발표하며 지낸다. ‘스포츠사회학(4판, 2021, 굿미디어)’을 썼다.

'남북 단일팀 역사 돌아보기'는 남북 스포츠 교류에 있어 단일팀 구성의 역사와 배경을 시대별로 짚어보고자 마련한 코너입니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 단일팀과 평화 체제 구축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이후'를 그리며

남북 단일팀 역사는 One Korea나, Two Korea나의 정치 논쟁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따라서 남북 관계의 정치적 영향하에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것은 그리 많지 않았다.

그러나 2018년을 계기로 남북 단일팀 구성은 정부 주도에서 민간 주도로 변화하는 단초가 마련됐다.

지금은 과거의 역사를 되짚어 보면서 다가올 기회를 어떻게 맞이할 것인지 차분하게 고민할 때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 공동 입장

남북 단일팀 구성의 정치화

2017년 북한의 장용 IOC 위원은 남북의 정치·군사적인 문제해결 없이 남북 체육 교류는 천진난만한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남북은 스포츠뿐 아니라 모든 영역에서 남·북·미 간의 복잡한 정치·군사적인 문제와 연관되어 있다. 지금도 그 여파로 남북은 전혀 소통할 수 없는 상황이다. 1956년부터 북한에서는 정치적 반대파를 제거하는 작업이 있었다. 일명 종파 사건이라고 하는 숙청 작업이다. 그때 체육계에서도 대대적인 변화의 바람이 불었다. 당시 체육계 수장은 궁선홍이었다.¹⁾ 그는 IOC와 접촉하며 북한이 올림픽에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한 첫 번째 인물이었다. 숙청의 대상이 되었다. 당시 반대파는 체육계에 세 가지 낡은 사상이 있다고 지적했다.

첫째는 선후배 문화, 둘째는 끼리끼리 문화, 마지막은 스포츠가 어떻게 정치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가였다. 당시 궁선홍은 스포츠는 정치로부터 간섭받지 않고 독립적인 영역으로 남겨두어야 한다고 주장하다가 숙청의 대상이 됐다. 과연 북한만 스포츠를 정치와 연관 지어 생각했을까? 남한도 남북 체육 교류 문제에 있어 스포츠를 정치적으로 접근했다. 1957년부터 시작된 남북 단일팀 논쟁은 처음부터 정치적이었다. One Korea를 주장하는 북한과 북한은 괴뢰 집단이라고 주장하는 남한 모두 스포츠를 정치적 도구로 이용했다. 스포츠 자체를 독립성을 가진 영역으로 보지 않았다. 그런 의미에서 1991년 지바에서 벌어진 남북 단일팀 성사는 남북의 정치적 이해와 요구가 맞아떨어진 것이었다.

과거 단일팀 구성은 매우 정치적이고 인위적이었다. 단일팀 구성을 통해 '작은 통일'을 경험할 수도 있었지만 근본적인 정치 문제에 가서는 원상태로 회귀하는 경험을 해왔다. 1950년대부터 일관하게 주장해 오던 북한의 단일팀 구성 제안은 1991년 이후부터 소극적 태도로 바뀌었다. 반대로 남한은 소극적인 태도에서 적극적인 태도로 바뀌었다.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체제 유지에 급급했던 북한은 유엔에 남북 동시 가입을 이루는 등 국제사회에서 국가성을 인정받고 독자적인 길을 가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반면 남한은 동구권 사회주의 국가들이 몰락하면서 북한과의 체제 대결에서도 이겼다는 자신감이 강하게 작용하였다. 1991년 그렇게 남북의 입장이 바뀐 상태에서 우리 정부는 지속성을 담보하기 위한 대안으로 남북 체육 교류 및 협력 3단계 추진 방안을 마련해 놓기도 하였다.

- 1단계 · 종목별 친선경기대회와 쌍방 개최 국제행사 상호 참가
- 단일 종목 국제대회에 남북 단일팀 참가

- 2단계 · 종합 국제대회에 남북 단일팀 참가
- 체육기자 상호 방문 및 지도자 교환
- 합동훈련 및 상호 전지훈련 교환 실시
- 체육학술회의 공동 주최와 쌍방 체육 행사 개최 협조

- 3단계 · 쌍방 체육 당국 간 체육 교류 협정 체결
- 쌍방의 기존 체육기구보다 상위의 단일 체육조직체 창설
- 국제 체육행사 공동 유치 및 공동 주최
- 모든 국제대회에 단일팀으로 참가
- 종목별 선수권대회 및 종합 체육대회 공동 주최 또는 윤번 주최
- 쌍방 체육기구 통합과 국제 체육기구 단일 조직체로 재가입 추진²⁾

지금 보아도 획기적인 구상이다. 이대로만 된다면 스포츠 분야가 앞서서 남북 스포츠 조직의 통합을 이룰 수 있는 큰 그림이다. 남 북이 스포츠 영역에서 정치적 간섭을 배제하고 독립성 보장을 추구했다면 어땠을까. DMZ 어디쯤에 남북이 함께 훈련하는 체육센터가 건립되고, 하나의 팀으로 IOC에 재가입을 신청했는지 모른다. 그러나 분단 체제하에서 스포츠 분야라고 해서 정치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역사의 가정은 없지만 1957년 북한의 궁선홍이 주장했던 스포츠의 탈정치화가 이뤄지고, 우리도 스포츠의 탈정치화가 잘 맞물려 돌아갔다면 이상적인 남북 스포츠 통합이 이뤄질 수 있는 가능성도 있지 않았을까. 지금이라도 남북 스포츠 분야의 책임 있는 인사들이 복잡한 정치적 상황에서 탈정치화를 주장할 수 있을지 진지하게 질문을 던져야 한다.

1) 해방 후 소련 체육을 들여와 '인민체육' 잡지의 주필을 지냈고 1955년에는 내각체육지도위원회 부위원장이면서 대외체육관계 업무를 맡아 IOC와 소통한 인물이다. 1957년 이후 홍명희로 바뀐다.
2) 국가기록원, "바르셀로나 단일팀 추진 1991-1991," DA0351789, 13-15



남북 단일팀이 2018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사람들의 환호를 받으며 입장하고 있다

21세기 변화된 남북 체육 교류

한동안 남북은 경색된 국면에서 스포츠 교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다가 1999년에 남북 통일농구대회를 시작으로 남북 통일탁구대회, 남북 노동자축구대회, 2000 시드니올림픽 공동 입장, 2001 남북 태권도 시범단 교류, 2002 부산 아시안게임 북한 참가, 2003 대구 유니버시아드대회 북한 참가, 2004 아테네올림픽 공동 입장, 2005 동아시아축구대회 북한 참가, 2006 도하 아시안게임 공동 입장, 2007 남북 유소년축구대회, 2008 아시아 유도선수권대회 북한 참가 등 1999년 김대중 정부 때부터 노무현 정부 때까지 화해와 평화통일을 향한 민간(협회·기업인) 중심의 체육 교류가 활발하게 이어졌다. 그 이후 북한에서 열린 2013 아시안컵 역도선수권대회에서는 남한이 참가했고, 2014 인천 아시안게임에는 북한이 참가했다. 이렇게 남북 스포츠 교류가 활발했던 2000년대 초반에도 북한은 단일팀 구성에 대한 의지를 보이지 않았다. 그리고 다시 정치적 경색 국면에서 교류가 없다가 문재인 정부 들어 2018 평창 동계올림픽에 북한 참가와 동시 입장, 여자 아이스하키 단일팀 구성 등의 남북 스포츠 교류에 성과가 있었다. 지금까지 국제대회를 이용한 남북 평화통일 이벤트로 공동 입장, 공동 응원, 공동 훈련, 단일팀 구성 등이 있었다. 여기에는 ‘우리는 하나다’, ‘우리는 통일을 이뤄야 한다’는 전제가 깔려 있다. 하지만 2018년 남한 정부의 제의로 구성된 단일팀은 과거처럼 동등한 조건으로 하나의 팀을 이룰 수 없었다. 단일팀 구성에 관한 국내 여

론도 호의적이지 않았다. 앞으로 남북 단일팀 구성을 올림픽과 같은 스포츠 빅 이벤트에서 인위적으로 구성하는 데는 어려움이 예상된다. 그럼에도 남북 선수들은 평창 올림픽 기간에 함께 훈련하고, 밥을 먹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본래 우리가 하나였음을 알게 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남북 스포츠 교류와 평화

남북 스포츠가 정치적 환경에 좌우될 수밖에 없다고 한계를 규정한다면 남북 스포츠 교류와 통합의 문제는 여전히 스포츠도 구화라는 수단적 한계를 극복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러한 현실을 인정하고 더 나은 환경과 조건으로 나아가기 위해 몇 가지를 제안한다.

첫째, 남북이 신뢰할 수 있는 인적 교류를 시작해야 한다. 과거, 남북 스포츠 교류가 성사되었던 때를 돌아보면 남과 북이 신뢰를 쌓기 위해 긴 시간 정성을 쏟았던 사례가 있다. 남북 비밀 특사로 활동했던 박철언 전 장관이 그러했다. 민간 영역에서는 최근까지 유소년 축구를 통해 교류를 이어 온 김경성 남북체육교류협회 이사장이 그 예다. 이 밖에도 경제인 정주영을 비롯해 남북 스포츠 관계 개선을 위해 애쓴 인사가 많이 있을 것이다. 남북 스포츠 교류 협력의 역사에서 정부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북한과 꾸준한 인적 교류를 통한 신뢰 형성이 무엇보다 중요한 기본 전제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 이는 단시간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오랜 시간 북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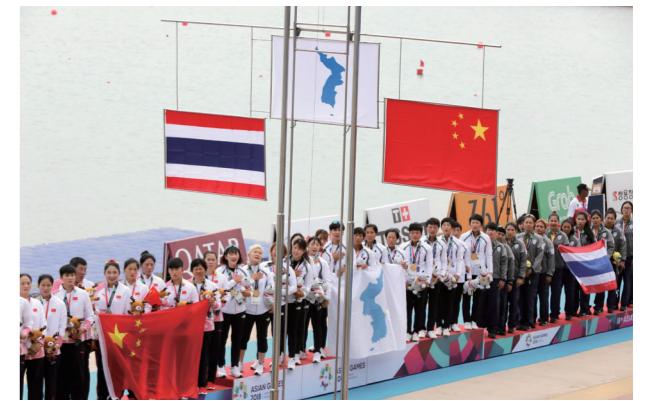
과 접촉해야만 신뢰가 싹트고 그를 기반으로 정치적인 협상까지도 이어질 수 있는 것이다.

둘째, 임시 평화체제의 간헐적 경험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 2017년 말까지만 해도 북미는 전쟁까지 불사하겠다는 공포를 조장했었다. 막말이 오가고 미사일 발사와 한미 군사훈련이 강도 높게 이어지는 국면에서 돌파구가 되었던 것이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이었다. 이를 계기로 남·북·미는 대치 상황을 잠시 내려놓고 평화라는 대의 앞에 한자리에 모일 수 있었다. 당시 유엔에서는 평창 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 기간 전후 7일까지 모든 군사적 대결과 긴장을 거두고 평화를 보장하는 임시 휴전협정을 맺은 바 있다. 이 협정 덕분에 북한의 김여정과 김영남 등 고위관계자들이 남한 땅을 공식적으로 밟았다. 서먹하긴 했지만 미국의 마이크 펜스 부통령과 잠시나마 한자리에 머물 수 있었던 계기도 됐다. 이것을 임시 평화체제라고 명명하기도 한다. 평화체제는 글이나 구호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에서 군사적 갈등과 긴장이 멈추고 남북의 자유로운 왕래가 허용되는 것이다. 그래서 스포츠 메가 이벤트가 있을 때마다 한반도에서의 짧은 기간이나마 평화체제 경험을 지속해 나가는 것은 매우 유의미하다.

셋째, 정부는 조력하고 민간이 주도하는 스포츠 교류가 필요하다. 2018년에 여러 곳에서 남북 스포츠 이벤트가 있었다. 특히 민간 주도의 스포츠협회 차원에서 활발한 움직임이 있었다. 스웨덴 세계탁구선수권대회에서 8강 후에 급히 이룬 남북 단일팀 경기가 있었고, 대전에서 치렀던 탁구 국제대회에서 남녀 혼합복식 단일팀이 우승, 자카르타 팔렘방 아시안게임 카누 경기에서 여자 단일팀이 우승했다. 여자 농구에서도 단일팀을 구성해서 경기를 치렀고 다른 종목들도 단일팀 구성에 관한 가능성을 타진하기도 했다. 이처럼 정부가 단일팀 구성 가능성을 열어주고 협회나 민간 영역에 맡겨도 그 자체의 역량과 조직력으로 충분히 해낼 가능성을 봤다. 이를 발전시켜 정부는 조력자의 역할로 남고 협회나 민간 주도로 스포츠 빅 이벤트를 함께 개최하고, 남과 북이 공동의 영역과 역할을 나눠서 치른다면 한반도 평화를 이끄는 실질적인 주체가 될 수 있다. 우선 2032년 서울 평양 올림픽 공동 개최와 같은 이슈를 지속적으로 만들어 갈 필요가 있다. 1991년에 대한축구협회는 2002년 서울 평양 월드컵 공동 개최를 추진했고 FIFA도 긍정적인 입장이었다. 그러나 1994년 김일성 주석 사망으로 그 이야기는 묻혔고, 이후 한일 공동 개최가 부상했다. 2002년을 떠올리면 한국과 일본은 큰 정치적 갈등 없이 공평하게 경기 수와 개최식과 폐회식을 나눠서 했던 경험이 있다. 결국



2018 평창 동계올림픽 당시 문재인 대통령과 영부인 김정숙 여사, 김여정 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 북한 대표단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남북 단일팀이 입장하자 손을 흔들고 있다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카누용선 경기 여자 500미터'에서 남북단일팀이 금메달을 획득했다

은 남과 북이 공존하며 평화를 만들어가는 데 스포츠가 이바지해야 할 숙명 같은 그 무엇이 있다. 남북이 스포츠를 통해 지속적으로 만나며 공동의 이익을 위해 스포츠 메가 이벤트를 성사시키려는 것은 남북이 함께 평화롭게 공존하고자 하는 의지의 표명이다. 여기에 안보 불안운을 이유로, 어느 한쪽을 이롭게 한다는 이유로 머뭇거리는 것은 평화의 길을 거스르는 것과 같다. 평화를 거절할 이유가 없는 대의를 지속해서 만들어야 한다. 이것이 우리가 우리답게, 스포츠가 스포츠답게 남북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해법이 될 것이다. ❁

글을 쓴 최진환은 체육 교사로 재직 중이며 북한대학원대학교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다. 연구 논문으로는 <남북 스포츠 분단의 역사적 함의>, <88 서울올림픽 공동주최 논쟁에 관한 연구>, <남북한 체육교육과정 비교연구>, <1991년 남북단일팀 성사와 단절에 관한 고찰> 등이 있다.

설원 위의 예술, 스노보드



지난 겨울을 보내고, 새로운 겨울을 맞이했다. 움츠러들었던 스노보드 세포를 깨워야 할 때다. 이때 예고도 없이 세포들을 깨웠다간 몸에 무리가 올 수 있다. 설원으로 떠나기 전에 랜선을 통해 우리 몸에 적당한 준비 시간을 내줘야 한다. 유튜브(Youtube)만 있다면 우리 집이 곧 설원이다.

겨울이 제철인 스포츠

제철 과일, 제철 음식이 있듯 스포츠에도 제철 종목이 있다. 여름 과일 하면 수박이 떠오르듯, 가을 회 하면 전어가 떠오르듯 겨울 스포츠 하면 스노보드가 떠오르지 않은가. 다시 한번 겨울이 돌아왔다. 철썩이는 파도에 몸을 맡겼던 지난여름은 잊고 높고 낮음으로 우리 마음을 간절하게 하는 설원을 온몸으로 맞이할 때다. 드넓은 스키장이, 형형색색의 스노보드가 지난 계절 간 묵힌 먼지들을 털고 일어나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이미 설원은 스키와 보드를 즐기는 사람들로 북적인다. 스키장에서 강사에게 배우는 오프라인 보드 교실도 서두르지 않으면 놓치기에 십상이다. 그렇다면 온라인으로 배워보는 것도 방법이다. 실제 선수들이나 전문 강사들이 마치 바로 앞에 있는 것처럼 모니터 화면 속에서 친절하게 가르쳐준다. 특히 초보자라면 스키장을 방문하기 전 온라인 강습으로 자세와 기술을 먼저 익히는 게 좋을 것이다. 이미 대중의 사랑을 듬뿍 받는 스노보드답게 오프라인과 온라인에서 강의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 ❄️

유튜브로 만나는 — 온라인 스노보드 교실

1 보타남 김호준

#구독자 1.13만 명 #총조회 수 206.72만 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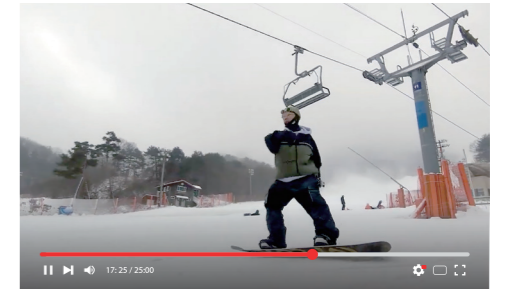


보타남 김호준 보기



2 익쓰익스

#구독자 7.52천 명 #총조회 수 195.51만 회



익쓰익스 보기



채널을 운영하는 김호준은 스노보드 종목 중 하프파이프 종목의 전 국가대표 선수다. 하프파이프 1세대 보더라고 할 수 있으며 국내 최초로 스노보드 종목 3연속 동계올림픽에 출전한 경험이 있다. '보타남 김호준' 채널은 스노보드를 처음 배우는 사람들보다는 고수들에게 추천한다. 스노보드 강좌 영상도 있지만 그보다는 스노보드를 타면서 겪은 일상 영상이 주를 이룬다. 그중 데크, 장갑 등 장비와 관련한 구매팁과 리뷰 영상이 인기다.

스노보드를 처음 접하는 사람이라면 '익쓰익스' 채널을 방문하자. 화려한 기술을 뽐내는 영상보다 S자, 낙엽 등 스노보드의 기본적인 기술을 다루는 콘텐츠들이 있다. 익쓰익스에서 기술을 선보이기 위한 자세들을 충분히 익히고 간다면 처음 접하는 설원이 두렵지만은 않을 것이다. 특히 이 채널은 웨이크보드, 스케이트보드 관련 영상도 있어 눈이 아닌 물과 땅 위에서 즐기는 보드의 맛도 볼 수 있다.

3 팀씨티

#구독자 2.29천 명 #총조회 수 24.81만 회



팀씨티 보기



스노보드 기술의 원리 등 이론을 알고 나면 눈 위에서 멋지게 기술을 선보이는 건 시간문제일 것이다. '팀씨티' 채널은 보더(Border)가 스키장이 아닌 실내 강의실에서 기술에 대한 이론을 차분히 알려준다. 초보자들을 위한 영상 콘텐츠는 이뿐만이 아니다. 게스트가 출연해 채널을 운영하는 전문 보더에게 일일 강습을 받는 콘텐츠는 초보자들에게 유용한 영상이 될 것이다.

4 고쌤의 스노보드

#구독자 3.2천 명 #총조회 수 23.99만 회



고쌤 보기



이 채널은 스노보드를 접하기 시작한 초보자부터 스노보드 강사 자격증을 준비하는 사람까지 폭넓은 수준의 보더들이 시청한다. 재생 목록 '튜토리얼'은 S자, 모굴, 카빙 등의 스노보드 기술을 초보 단계에 맞춰 자세부터 친절히 설명한다. 초보자를 위한 영상 콘텐츠 외에도 중급자용 기술 시범 영상, 강사 자격증용 영상, 전문 기술을 선보이는 라이딩 영상까지 있다.

사계절 내내 즐기는 커롤링

지난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때 대중들의 이목을 끈 종목이 있었으니 바로 컬링(Curling)이다. 인기 종목으로 거듭난 컬링이지만 경기를 치를 수 있는 장소가 주변에 흔히 없어 경기 관람으로만 즐겨야 했다. '커롤링(Curoling)'을 알기 전까지는 말이다.



©Shutterstock

쉽게 즐기는 컬링, 커롤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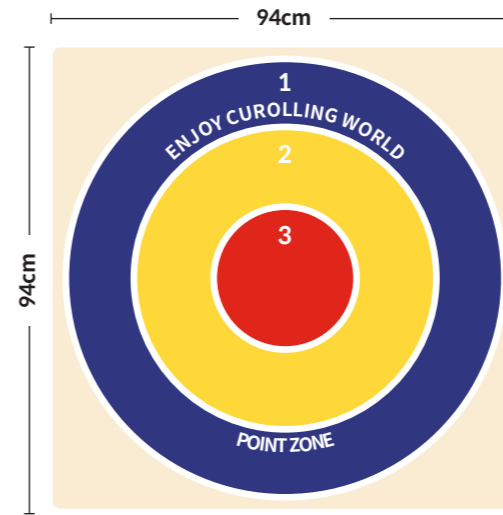
커롤링은 빙상 스포츠 컬링에서 착안한 뉴스포츠 종목이다. 경기 용구, 방식 등 컬링과 매우 유사해 보이지만 그 자체의 매력에 충분한 종목이다. 우선 컬링과 커롤링의 가장 큰 차이점은 경기 장소에 있다. 컬링을 떠올리면 얼음판이 가장 먼저 떠오를 것이다. 하지만 커롤링은 얼음판이 아닌 곳에서도 경기를 할 수 있다. 컬링과의 큰 차이점이 커롤링만의 가장 큰 장점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얼음판은 필요 없어서 봄, 여름, 가을, 겨울 사시사철 즐길 수 있는 스포츠다. 경기를 언뜻 봤을 때 제트롤러를 있는 힘껏 밀어 상대 팀의 제트롤러를 맞추는 경기로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커롤링은 '힘'으로 치르는 스포츠가 아니다. 제트롤러를 상대 팀

보다 포인트존 중앙에 위치시켜야 높은 점수를 얻기 때문에 팀원들 간의 '전략'으로 승부를 봐야 하는 스포츠다. 이러한 과정에서 협동심을 기르고 집중력을 향상할 수 있다. 특별한 기술이나 힘이 요구되지 않기 때문에 유아부터 노인까지 다양한 연령대가 즐기는 스포츠로도 꼽힌다. 플로어컬 또는 플로어 컬링이라고도 불리는 커롤링은 일본 나고야에서 베어링회사를 경영하고 있는 다나카 고이치 사장이 개발한 스포츠 종목으로 일본 레크리에이션협회의 추천 종목이기도 하다. 현재는 미국, 캐나다, 프랑스, 영국 등 세계적으로 퍼져나가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사단법인 한국뉴스포츠협회에서 국내에 최초 도입해 보급하고 있다. ❄️

경기 용구

포인트존

평평한 바닥에 평면 테이프로 부착한다. 가로x세로 94cm의 정사각형, 두께 0.15cm



제트롤러

빨강, 검정, 노랑, 초록, 파랑, 주황 6개 색으로 이루어진 제트롤러는 밑면에 베어링호일이 부착되어 있어서 바닥을 부드럽게 달릴 수 있다.



경기 방법

- ① 한 팀당 3명의 선수씩, 2개 팀이 경기한다.
- ② 선수당 2개의 제트롤러, 한 팀당 총 12개의 제트롤러를 사용한다.
- ③ 제트롤러의 색깔에 따라 던지는 순서가 정해져 있다.
*제트롤러 투구 순서: 주황 ▶ 파랑 ▶ 초록 ▶ 노랑 ▶ 검정 ▶ 빨강
- ④ 한 경기는 5엔드가 기본이다. 경기 최초 엔드는 동전 토스로 투구 선수를 정하고, 두 번째 엔드부터는 진 팀이 후공이다.
- ⑤ 스톤은 상대방과 한 개씩 번갈아 가며 투구하고, 모든 선수의 투구가 끝나면 한 엔드가 종료된다.
- ⑥ 포인트 존의 중심에서 가장 가까운 제트롤러가 있는 팀이 승리한다.

점수 계산 방법

*포인트존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 빨강: 3점
- 노랑: 2점
- 파랑: 1점



배빅!
반칙을
조심하세요!

- ① 자세를 완전히 숙이지 않고, 반쯤 일어나거나 달려가며 투구한 경우
- ② 신발 끝이 출발선을 넘어간 경우 **OUT**
- ③ 투구 시 손바닥이 출발선을 넘어 바닥에 닿은 경우 **OUT**



추위도, 통증도 이겨내는 운동법

겨울에 접어들면서 본격적인 한파에 대비할 것을 알리는 뉴스들이 연일 보도된다. 날씨가 추워지면 급작스러운 허리나 무릎 통증 혹은 관절염이 악화해 병원을 찾는 사람들도 많아진다. 동장군의 저주일까. 추운 날씨가 우리 몸에 주는 영향은 무엇이고, 이를 예방할 방법으로는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자.

추운 날씨엔 통증 저염병?

겨울만 되면 이상하게 허리나 무릎이 시리고 아픈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날씨가 급격히 추워지면 허리 통증이나 무릎 통증, 기존의 관절염 통증이 악화해 병원을 찾는 사람들이 실제로 많다. '날씨가 추워지면 근육이 경직되고 혈액순환이 잘 안 돼 통증이 유발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 혹한기 훈련을 하는 군인을 떠올려 보자. 위의 설명대로라면 얇은 훈련복을 입고 추운 칼바람을 버티며 훈련하는 군인들은 상당수가 추운 날씨에 근육이 경직되고 혈액순환이 잘 안 돼 통증을 호소해야만 한다. 그러나 신체가 건강한 젊은 군인은 그러한 증상이 없다. 추운 날씨와 허리 통증이나 무릎 통증과의 사이에서 연관성을 찾으려면 몇 가지 선제 조건이 따라야 한다.



첫째, 유연성이 낮다. 유연성은 한 관절이 완전한 관절 가동 범위가 나올 수 있는 모든 연부조직의 신장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평소 유연성이 충분히 확보돼 있다면 추위 때문에 관절에 통증이 발생할 가능성은 적다. 한 문헌에 따르면 햄스트링¹⁾의 제한된 가동 범위와 신장성으로 유발된 허리 통증은 근육의 경직 때문이 아니라 낮은 유연성이 원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평소 충분한 유연성이 확보된 상태라면 일시적인 근육 경직(Muscle Stiffness)이 허리 통증을 유발하지 않는다.²⁾ 겨울철에는 추위로 평소보다 운동량이나 신체 활동이 줄어들어 유연성이 떨어질 수 있다. 평소 유연성이 좋다면 꾸준한 스트레칭과 운동으로 이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유연성이 부족하다면 겨울철에는 더욱 충분한 스트레칭을 통해 통증과 부상의 위험을 방지해야 한다.

둘째, 관절염이 있는 고령인 경우다. 평소 퇴행성 관절염이나 류머티즘관절염 등 관절염이 있는 고령은 추운 날씨에 관절 통증이 악화한다는 보고가 있다. 이외에도 기압이 낮거나 습한 날씨에도 통증이 심해질 수 있다. 이는 기저질환의 악화로 인한 것으로 일상생활이 힘들 정도로 통증이 지속된다면 주치의를 찾아가 진료 받아야 한다.

셋째, 평소 하던 신체 활동(운동)이 현저히 줄어든 경우다. 이 경우, 첫 번째에서 언급했던 유연성이 낮은 경우와 연관 있다. 추운 날씨로 인해 신체 활동이나 운동 횟수가 줄면서 유연성이 떨어졌기 때문이다. 신체 활동이 현저히 줄었음에도 평소 하던 운동을 그대로 한다면 자신의 신체 능력을 넘어선 무리한 동작을 시도함으로써 부상이 발생하거나 근육이나 관절에 통증을 유발할 수 있다. 평소보다 신체 활동이 확실히 줄었다면 운동의 강도도 줄임으로 이전에 해오던 운동 패턴에 변화를 주는 것이 필요하다. 이외에 추위만으로 발생하는 통증도 있을 수 있다.

전방슬관절통증(Anterior Knee Pain)의 경우 슬개골 부위가 차가운 온도로 인해 표피 혈관이 수축해 저산소 혈증을 유발, 무릎 부위 통증이 발생할 수 있다는 보고가 있다. 또한 냉장실에서 근무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건막염과 손목터널증후군(Carpal Tunnel Syndrome)의 발생 위험이 많이 증가했다는 보고도 있다. 이러한 특수한 경우에는 추위를 대비해 통증 유발을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1) 인체 허벅지 뒤쪽 부분의 근육과 힘줄로 동작을 멈추거나 속도 감속 또는 방향을 바꿔주는 역할을 한다.
2) 평소 충분한 유연성이 확보된 상태라면 일시적인 근육 경직(Muscle Stiffness)이 허리 통증을 유발하지 않는다.



동계 스포츠의 안전사고 및 운동 부상의 예방

겨울철 야외 스포츠는 추위로 신체의 경직이 스포츠 활동 중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스키나 스케이트보드, 사이클 등 빠른 속도가 중요한 스포츠의 경우 준비운동을 통해 혈액순환을 촉진하여 체온을 높이고, 신체 관절의 가동 범위를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 안전 장비도 잊어서는 안 된다. 정적 스트레칭과 함께 동적 스트레칭이 준비운동에 도움이 될 수 있어 몇 가지 소개하고자 한다. ❄️



정적 스트레칭은 약 20~30초 정도 타깃 근육을 최대한으로 신전시킨 상태로 유지하는 것으로 관절 부위 근육의 스트레칭을 통해 관절 가동 범위 향상을 도모한다. 누구나 쉽게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할 수 있어 유용하다. 순간적인 힘을 발휘해야 하는 스포츠 경기에는 정적 스트레칭이 수행 능력을 저하한다는 보고가 있으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다.



정적 스트레칭과 달리 기능적 동작으로 수행한다. 특히 진행하게 될 스포츠나 운동의 동작과 유사한 동작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경기 시 부상의 위험을 줄일 수 있다. 정적 스트레칭보다는 신체의 균형 감각이나 협응력을 필요로 한다. 국제축구연맹에서 축구선수들을 위한 준비운동 프로그램인 FIFA 11+를 공개했으니 이를 참고해도 좋다.

글을 쓴 오성관은 가정의학과 전문의로 웨이트트레이닝 경력 21년의 취미 운동가다. 백세시대를 맞이하며 반드시 알아야 할 바른 건강법, 바른 운동법을 알리고자 SNS, 미디어, 헬스케어 분야 등에서 활발히 활동 중이다.



당곡중학교 교사
홍유진

정발중학교 교사
최지인

무학중학교 교사
윤지연

우리를 구하러 온 나의 히어로 _____ 원더티처

홍유진 당곡중학교 교사 & 최지인 정발중학교 교사 & 윤지연 무학중학교 교사

첫발을 뗀 지 일 년 남짓한 이들의 행보가 심상치 않다. 학교체육 현장에서 여자 체육교사로서 감당해야 했던 '나'의 고민이 '우리'의 고민으로 확장되었을 때 그들은 힘을 얻었고 변화하리라는 희망을 발견했다. '원더티처(Wonder Teacher)', 그들의 이름이다.

“
모임 활동을
하면서 교사들은
힐링(Healing)하고,
그 힐링은
학생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가죠.
원더티처는
결국 모두에게
행복을 주는
모임입니다
”

독자분들께 자기소개해주세요.

홍유진·안녕하세요. 서울 당곡중학교 체육교사 이자 원더티처 대표인 홍유진입니다.

최지인·반갑습니다. 경기도 고양 정발중학교 체육 교사 최지인입니다. 원더티처 운영진 '히어로' 중 유일하게 경기도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윤지연·안녕하세요. 원더티처 히어로 윤지연입니다. 지금은 휴직 중이며 대학원에서 청소년 신체 활동과 관련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2023년에 서울 무학중학교로 복직 예정입니다.

원더티처는 어떤 모임인가요?

홍유진·'여자교사체육공동체'라고 간단하게 소개할 수 있겠습니다. 이름 그대로 여자 체육교사들이 모여 함께 학교체육 교육에 대해 고민하고, 연구하는 곳입니다.

윤지연·여자 체육교사들이 재미있는 일들을 벌이면서 더 나은 현장을 위해 변화를 직접 일으켜 보자며 만든 모임입니다.

최지인·교사와 학생 모두에게 행복을 주는 모임이기도 합니다. 교사로서 전문성을 키우고 싶은 분이 많은데 여교사에게는 기회가 별로 없어요. 우

리 원더티처는 여교사들에게 그런 기회를 제공합니다. 모임 활동을 하면서 교사들은 힐링(Healing)하고, 그 힐링은 학생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가죠. 원더티처는 결국 모두에게 행복을 주는 모임입니다.

모임이 만들어진 계기가 무엇인가요?

홍유진·외로움에서 시작한 교사들의 수많은 니즈(Needs)가 모여 만들어졌습니다. 교육 관련 연수 혹은 학교체육 현장에서 생각보다 많은 '여자' 체육교사들이 외로움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체육 실기 등 새로운 것을 배우러 간 연수에서 남자 교사들이 주로 메인에 서다 보니 한 발짝 뒤로 물러서게 되더라고요. 그 누구도 뒤로 빠지라고 얘기하지 않았는데도 말입니다. 현재 학교에서 여자 체육교사는 저뿐이기도 하고요. 외로움이 '나'만 갖고 있는 마음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차렸을 때, 함께 성장하자는 마음으로 모였습니다.

최지인·홍유진 교사 말처럼 저 역시 교사로서 발전하고, 성장하고 싶었습니다. 체육 실기를 더 배우거나 교육 과정을 연구하고 싶은 욕구가 많았죠. 하지만 제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곳은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여자 체육교사들과 저마다의 고민거

리를 나누면서 깨달았어요. 그들도 같은 고민을 안고 있었죠. “없으니 우리가 한번 만들어 보자!” 우리와 같은 생각을 하는 여자 체육교사가 더 많이 있을 거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원더티처’의 뜻은 무엇인가요?

홍유진· 단어가 조금 익숙하지 않으세요?(웃음) 영화 <원더우먼>에서 빌려 왔습니다. ‘원더우먼(Wonder Woman)’의 원더와 선생님의 ‘Teacher’를 합친 말이에요. 원더우먼처럼 여자 히어로가 되어서 학교 체육 현장의 많은 문제를 해결하는 등 체육 현장을 구하겠다는 아주 야심 찬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최지연· 원더우먼이 영웅 캐릭터잖아요. 어떤 일인데 알아서 척척 잘 해내기도 하고요. 씩씩한 원더우먼과 달리 여자 체육교사들은 현장에서 항상 소극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혼자 아니란 걸 알았고 함께라면 모두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영웅이 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담았습니다.

윤지연· 모임이 만들어지고, 나름 해석을 곁들어 보았습니다. 원더(Wonder)란 ‘궁금하다’, ‘궁금해하다’라는 뜻이기도 해요. 변화를 위해 뜻을 함께한 원더티처들을 보고 다른 분들이 ‘저 교사들은 모여서 무엇을 할까?’ 하며 기분 좋은 호기심을 갖게 되는 모임이 되고자 합니다.

원더티처는 어떻게 운영되나요?

홍유진· 우선 원더티처 구성원은 크게 원더티처 히어로, 멤버, 후원 멤버로 나뉘집니다. 연간 활동을 기획·진행하고, 홈페이지 관리나 자료 DB 관리, 외부 기관과의 협력 등 원더티처를 위해 힘쓰는 운영진을 ‘히어로’라고 합니다. ‘원더티처’는 모임 활동에 참여하는 교사를 일컬으며 모든 프로그램 참여에 우선권이 있습니다. ‘후원 멤버’는 원더티처를 응원하며 물심양면으로 후원해 주시는 분입니다.

윤지연· 작년 2022년 기준, 150여 명의 여자 교사가 원더티처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체육 중등 교사로만 운영했는데 현재는 초등 교사, 유치원 교사, 특수학교 교사 등 체육 교육을 위해 애쓰는 모든 교사가 함께합니다. 여자 교사들뿐만 아니라 남자 교사 등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분들은 후원 멤버로 동참할 수 있습니다.

최지연· 모임에 가입할 때 어떤 활동을 하고 싶은지, 어떤 고민이 있는지 수요 조사를 합니다. 그때 나온 교사들의 요구를 토대로 히어로 운영진이 회의를 통해 아이디어를 구체화하는 형식으로 일 년의 프로그램을 기획합니다. 진행하는 과정에서 프로그램 중간 점검 차원의 회의도 하며 교사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떤 프로그램들이 있나요?

최지연· 교사들이 실기 연수에 대한 욕구가 아주 강하기 때문에 실기 연수 프로그램이 많습니다. 정기적으로 진행되는 프로그램에는 일일 클래스, 둘체클래스, 아장아장 클래스가 있습니다. 일일 클래스는 축구, 농구, 배구, 초등 신체 활동 등 실기



원더티처 히어로 홍유진

“외로움이 ‘나’만 갖고 있는 마음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차렸을 때, 함께 성장하자는 마음으로 모였습니다”



종목을 직접 배우며 수업 사례를 나누고, 함께 수업을 고민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윤지연· 둘체클래스는 ‘돌아온 체육 시간’의 줄임말인데요. 교사가 학생이었던 시대에는 배우지 않았던 ‘뉴스포츠’를 요즘 세대의 체육 시간 그대로 교사들끼리 즐기는 프로그램입니다. 아장아장클래스는 종목별 입문자 수준의 교사들을 위한 수업입니다.

홍유진· 실기 연수 프로그램 외에도 신규 교사를 위한 특강, 알쓸체잡 세미나, 원더줌라디오 심야토크쇼 등 다양한 성격의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오늘(2022년 12월 6일)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임용 2차 재능기부프로젝트 원더드림, 원더티처 체육대회가 진행 예정입니다. 전국 교사 3대3 농구대회 등 각종 대회도 운영합니다.

공식 프로그램에서 파생된 모임도 있는 걸로

알립니다. 이 모임들이 만들어진 계기가 무엇인가요?

최지연· 우선 ‘원더티처’라는 모임 수 있는 장(場)이 생겼다는 이유가 가장 큰 것 같습니다. 그동안 기획

가 없어 하지 못했던 것들을 원더티처에서 할 수 있게 된 것이죠. ‘나’와 같은 사람이 여러 명이니까요.

홍유진· 원더티처 프로그램은 주로 3시간의 일일 클래스로 진행됩니다. 한 종목을 다 배우기에는 부족한 시간이예요. 클래스에 참여한 교사 중 더 많은 것을 함께 배우고 나누자는 마음에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렇게 결성한 축구 동아리 ‘FC원더티처’는 대회에서 준우승을 차지하기도 했는데, 이처럼 교사가 체득한 경험을 학생들에게 교육으로 전달할 수도 있죠.

윤지연· 앞서 최지연 교사와 홍유진 교사가 말씀하신 계기로 원더티처 내에 축구 동아리 FC원더티처와 농구 동아리 원더T, 댄스 동아리 D.WON을 결성했습니다. 좋은 교사들이 함께 같은 고민을 나누다 보니 그들과 더 자주 만나고, 같이 배우고 싶다는 마음이 모여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많은 프로그램이 있는데,

개인적으로 마음이 가는 프로그램이 있다면요?

홍유진· 일주일에 한 번씩 꾸준히 모이는 동아리



원더티치 히어로 최지인

“
우리와 같은 생각을 하는
여자 체육교사가 더 많이 있을 거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

“
원더티치 덕분에 학교 현장에서
잘 진행했다는 피드백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정말 의미 있는 일들을 하고
있다는 걸 실감했어요
”

모임입니다. 일일 클래스로 진행한 프로그램이어서 한두 번 만나는 걸로 끝날 수 있었는데, 세 번, 네 번 이어진 거 같아요. 학교 현장에서 홀로 외로이 고민하며 지내다가 ‘함께’라는 마음으로 모이는데, 이 점이 바로 원더티치가 가고자 하는 방향과 가장 부합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최지인· 프로그램을 통해 파생된 축구 동아리 FC 원더티치입니다. 매주 목요일, 교사들이 자율적으로 모여 동아리 활동을 합니다. 서울이 아닌 다른 지역에 계시는 분들도 두 시간, 세 시간씩 걸려서 운동하러 오세요. 동아리 활동 시간이 두 시간인데도 불구하고요. 또 FC원더티치를 하면서 ‘아장아장 클래스’ 프로그램을 기획했어요. 동아리원들이 축구를 전혀 모르는 교사들을 대상으로 축구 강습을 해보자는 취지에서요. 좋은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동아리죠.

윤지연· 모든 프로그램이 기억에 남지만, 특히 ‘돌체클래스’가 떠올라요. 교사가 알아야 학생을 가르칠 수 있다는 마음으로 기획한 프로그램인데요.

종목 경기를 치르고 서로 수업 구성 등 꿀팁을 공유했는데, 원더티치 덕분에 학교 현장에서 잘 진행했다는 피드백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정말 의미 있는 일들을 하고 있다는 걸 실감했어요.

위밋업스포츠 등 많은 곳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원더티치를 응원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홍유진· 위밋업스포츠나 실천교육교사모임은 원더티치와 처음부터 지금까지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원더티치를 응원하는 이유는 히어로를 비롯해 원더티치들의 모습에서 본인의 모습이 보이기 때문이지 않을까 생각해요. 혹은 나의 아이들이 미래에 만날 선생님의 모습을 원더티치를 통해 보시는 것 같기도 하고요. 어렸을 적 체육시간을 떠올리며 ‘그때 얻지 못한 것들을 원더티치라는 사람들이 만들어 주고 있구나’ 하는 마음으로 도와주시는 것 같습니다.

최지인· 후원하시는 모든 분과 우리 원더티치의



원더티치 히어로 홍유진

뜻이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현재를 조금 더 나아가게 만들고 싶다는 마음이에요. 우리를 통해 조금 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고, 긍정적인 영향력을 끼치고, 선한 도움을 주고 싶다는 취지와 같기 때문에 원더티치가 가는 길을 묵묵히 응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원더티치를 잘 봐주셔서 늘 감사한 마음입니다.

윤지연· 제가 후원자라면 어느 단체에 후원하고 싶을까 고민해 봤습니다. 저는 직접적으로는 함께 할 수 없지만, 어떤 모임이나 단체가 의미 있는 활동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 때 후원할 것 같더라고요. 원더티치를 응원하고 후원하시는 분들도 이와 같은 마음일 거라고 믿습니다.

원더티치를 통해 이루고 싶은 것이 있나요?

홍유진· 거창하게 무언가를 이룬다기보다는 제가 체육교사의 삶을 살아가는 데 지치지 않게 해주고, 힘들 때 기댈 수 있는 모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여자 체육교사들에게도요.

최지인· 저는 원더티치가 대단한 단체, 공동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열심히 하고자 하는 마음이 하나하나 모여 만들어진 것에 불과해요. 최소한 한 사람만이라도 우리를 보면서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마음을 먹었다면 그 자체가 의미 있는 거죠.

윤지연· 원더티치 교사들 혹은 학교 현장에 있는 많은 교사에게 우리 원더티치들이 지금도 열심히 발로 뛰고 있는 이 작은 노력들이 정말 변화를 만들 수 있다라는 믿음을 주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도 학교체육 현장을 위해 애쓰고 있는 동료 여성 체육교사들에게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홍유진· 주변에 나 혼자만 있는 것 같지만, 절대 혼자 아님니다. 함께한다면 무엇이든, 어떤 어려움이든지 이겨낼 수 있습니다. 여자 체육교사 파이팅!

최지인· 저는 올해로 4년 차 교사입니다. 고민을 아주 많이 했어요. 열심히 하려는데 눈치 보이는 상황도 많았고, 할 수 없는 일도 상당히 많았거든요. 그럴 때마다 내가 잘하고 있는 게 맞나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함께하는 동료들을 보며 힘냈습니다. 지금도 전국 곳곳에서 체육 수업과 학생들을 위해 노력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우리 함께 학생들이 더 이상 체육에서 멀어지지 않도록 열심히 이겨냅시다.

윤지연· 지금 하고 있는 노력이 눈에 바로 띄지 않아 ‘과연 실제로 학교 현장을 바꾸고 있는 건가?’라는 고민을 많이 하실 텐데요. 저는 여러분의 포기하지 않는 노력을 알고 있습니다. 그 노력이 당장 보이지 않더라도 아주 얇은 0.1cm짜리 종이를 천 번, 이천 번 접으면 감당할 수 있는 두께가 되는 것처럼 여러분의 부지런한 노력과 열정이 쌓이면 실제로 학교 현장을 우리 스스로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아무튼 스포츠'는 스포츠와 관련 문화, 트렌드를 소개하는 코너입니다.

운동과 조우한 채식

우리는 그동안 '운동 효과를 높이려면 고기로 단백질 보충을 해야 한다'는 문장을 불변의 진리처럼 여겨 왔다. 그런데 최근 채식으로 경기력이 향상됐다. 프로 운동선수들이 하나들 등장하고 관련 책, 다큐멘터리, 논문 등이 속속 나오면서 운동과 채식의 만남에 주목하는 사람들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채식의 새로운 가능성을 증명한 선수들

닭가슴살, 계란, 유청 단백질 보충제, 지방을 걷어 낸 붉은 살코기. 운동 좀 한다는 사람들은 건강하고 보기 좋은 몸을 유지하기 위해 동물단백질을 끼고 산다. 운동을 취미로 즐기거나 거의 하지 않는 사람들도 채식을 실천하는 이들을 향해 “너 그러다 힘 없어서 쓰러져”라는 말을 농담 반 진담 반으로 툭툭 던지곤 한다. 그런데 누구보다도 단백질 보충이 중요한 프로 운동선수들 중 채식을 하겠다고 선언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어 눈길을 끈다. 아울러 이들은 채식 후 오히려 몸 상태가 좋아졌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상당수는 향상된 경기력으로 이를 증명하고 있다.

올해 SSG 랜더스의 KBO 정규리그 및 한국시리즈 우승에 일조한 만 38세의 백전노장 투수 노경은 선수는 2020년 초부터 채식을 시작했다. 투수코치의 권유로 다큐멘터리 <더 게임 체인저스(The Game Changers)>를 시청한 것이 그 계기. 그는 채식과 더불어 유제품과 달걀까지 먹는 락토오보 베지테리언(Lacto-Ovo Vegetarian)으로서 엄격하게 식단 관리를 했으며, 이러한 노력을 바탕으로 롯데 자이언츠의 중요한 선발투수 자원으로 활약했다. 올해 SSG 랜더스로 이적한 뒤에도 12승 평균자책점 3.05의 준수한 성적을 기록, 운동선수도 채식이 가능하며 나아가 경기력도 향상시킬 수 있음을 몸소 보여줬다.



FLEXITARIAN

육에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할 수 있어 운동 능력이 더 향상된다”며 채식이 우리의 선입견과 달리 일상생활과 운동의 충분한 원동력이 될 수 있다고 이야기했다. 많은 사람에게 깊은 감명을 준 다큐멘터리 <더 게임 체인저스>에도 채식의 강점이 자세히 소개돼 있다.

우리가 단백질을 섭취해야 하는 이유 중 하나는 단백질을 구성하는 주요 성분인 아미노산 때문인데 아미노산은 콩과 같은 식물단백질에도 풍부하기에 굳이 동물 단백질을 선택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또한 고기에는 N-글리콜리뉴라민산·내독소·헵탈과 같은 염증성 분자로 구성된 단백질이 함유돼 있는 반면 식물단백질에는 염증을 줄이고 미생물 군집, 혈액 공급, 신체 기능을 최적화하는 데 도움을 주는 항산화제·파이토케미컬·미네랄·비타민 등이 들어 있다는 점도 채식의 빼놓을 수 없는 장점이라고 이 다큐멘터리는 말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다수의 전문가는 균형적 대사, 근육 및 면역 세포 형성 등을 위해 동물단백질을 섭취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런가 하면 한편에서는 육식과 채식 중 어느 하나만을 정답으로 여기는 시대는 지났다고 건강을 위해 채식을 위주로 하되 상황에 맞게 육식도 병행하는 플렉시테리언(Flexitarian) 식사를 추구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이처럼 설왕 설래가 많다는 것은 결국 식생활에는 왕도가 없다는 결론으로 이어진다.

운동과 병행하며 활기찬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면 그것이 바로 나에게 맞는 식생활이다. 그러니 당장 오늘부터 음식에 대한 몸의 반응에 좀 더 귀 기울이며 이것저것 고루 먹고 몸을 움직여 보자. 내 식생활의 정답은 바로 그 안에 존재한다. ✨

아스팔트 대신 산길, 초원, 사막 등 자연의 길을 뛰는 스포츠인 트레일러닝의 자타 공인 국내 1인자 김지섭 선수는 열량 높은 음식을 섭취한 후 컨디션이 떨어지는 것을 몸소 느낀 뒤 2019년 6월부터 본격적으로 채식에 돌입했다. 이후 2022년 6월까지 국내 모든 트레일러닝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했으며 세계 최고 대회인 프랑스의 울트라 트레일 몽블랑(UTMB) 순위권 입상을 목표로 채식과 함께 열심히 달리고 있다. 채식주의 운동선수 사례는 해외에서 더 많이 찾아볼 수 있다. 테니스 스타 자매 세레나·비너스 윌리엄스, 포물러원의 황제 루이스 해밀턴, 프리미어리그를 거쳐 현재 AS로마에서 뛰고 있는 크리스 스몰링 등 각 종목 최상위권 선수들이 알게 모르게 채식을 실천하고 있으며 그 숫자는 꾸준히 우상향 곡선을 그리고 있다.

결국 정답은 '나에게 맞는 식생활'

우리 머릿속에는 ‘육식=단백질=힘’이라는 공식이 새겨져 있다. 어릴 적부터 그렇게 배워 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동의병원 슬관절센터장이자 채식을 권하는 의사·치과 의사·한의사·수의사 모임인 ‘베지닥터’에서 활발하게 활동 중인 송무호 박사는 한 인터뷰에서 이를 근거 없는 믿음이라고 말했다. 장거리 운동선수들은 에너지원을 근육에 저장하기 위해 시합 며칠 전부터 고기보다 탄수화물을 많이 먹는 카보로딩(Carbo-Loading)을 실행한다. 우리 몸의 에너지원은 단백질이 아니라 탄수화물이기 때문. 근육 형성에 필요한 단백질도 식물성 원료로 얼마든지 보충할 수 있다고 지적한 그는 “채식을 하면 혈관이 깨끗해지고, 심폐 기능이 향상되며, 근

글을 쓴 강진우는 객관적인 정보와 색다른 시선을 바탕으로 다양한 기사와 문화칼럼을 쓴다. 우리 삶과 밀접한 연관성을 지닌 현안과 분야에 몰입한다. 소설 <선물>, 자기계발서 <칼럼니스트로 먹고 살기>를 집필했다.



서울특별시체육회 뉴스

민선2기 서울특별시체육회장 강태선 후보 당선

12월 15일(목) 세종대학교 대양시센터에서 민선2기 서울특별시체육회장 선거가 개최되었습니다. 이날 선거에서는 기호 6번 강태선 후보가 402표 중 177표를 득표(득표율 44.0%)해 민선2기 서울특별시체육회장으로 당선됐으며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당선증을 교부 받았습니다. 강태선 당선인은 주요 공약 사항으로 “체육운용기금 100억 확보 등 재정 자립 마련, 체육 복지를 위한 스포츠 인프라 플랫폼 구축, 서울 브랜드 국제대회 개최” 등을 비전으로 제시했습니다. 강태선 당선인은 오는 2023년 정기대의원 총회부터 4년 동안 서울체육의 총본산인 서울특별시체육회를 이끌 예정입니다. 한편, 이날 선거에서 선거인단은 526명으로 구성됐으며 402명이 투표에 참여해 투표율 76.4%를 기록했습니다.



2022 서울특별시 체육인의 밤 개최



12월 20일(화) 광진구 소재 세종대학교 컨벤션 센터 공개토관에서 2022년 서울특별시 체육인의 밤이 개최되었습니다. 이날 행사는 서울시체육회-서울시장애인체육회 공동 주최로 김의승

서울시 행정1부시장과 이종환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김영채 서울시체육회 부회장, 고만규 서울시장애인체육회 수석부회장 등 1,000여 명의 관계자가 참석해 한 해 동안 서

울체육 발전을 위해 노력한 체육인을 격려했습니다. 이날 서울특별시체육회 체육대상은 제 103회 전국체육대회 수영(경영) 종목에서 5관왕을 차지한 허연경(방상고) 선수가 수상의 영예를 안았으며, 최우수 남녀선수상에는 이관호(핀수영), 박다운(유도), 최우수단체상에는 서울시청 철인3종팀(남), 핸드볼팀(여)가 선정되었습니다. 이밖에 서울시 체육진흥 유공자에 대한 표창으로 서울시장상 58명, 서울시의회 의장상 10명, 서울시체육회장상 35명을 시상했습니다.



서울특별시체육회 뉴스

2022-2023 서울광장 스케이트장 개장



12월 21일(수)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2022-2023 서울광장 스케이트장 개장식이 개최되었습니다. 이날 개장식 행사에는 오세훈 서울시장,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 이종환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등 내빈이 자리해 코로나19로 인해 개장하지 못했던 2019-2020 시즌 이후 3년 만에 서울광장 스케이트

3년 만에 재개장하는 서울광장 스케이트장은 오는 2023년 2월 12일(일)까지 54일간 운영되며, 주요 고객인 어린이를 위해 어린이 아이스링크, 아이스버퍼카, 스케이트 강습과 더불어 주말, 성탄절, 송년제야 이벤트 등 다채롭고 가족 친화적인 행사를 통해 서울시민들에게 그 어느때 보다 따뜻한 겨울을 선사하기 위해 노력할 예정입니다.

2022 생활체육지도자 직무 교육 개최



지난 11월 21~22일 양일간 광진구 소재 세종대학교 대양시센터에서 생활체육지도자 역량강화를 위한 2022년 생활체육지도자 직무교육이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행사는 코로나19로 인해 3년 만에 오프라인 대면 교육으로 진행되었는데, 지도 능력 향상 교육을 비롯해 문서 작성법과 같이 업무와 밀접한 직무 지식 습득을 위한 교육과 더불어 아이스브레이킹을 통한 팀워크 향상 교육도 함께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교육에서 본회 임흥준 사무처장은 “최전선에서 우리시 체육 발전을 위해 이바지하는 생활체육지도자분들에게 감사드리며 2023년도 건강한 서울을 만들어가는데 많은 노력을 부탁드립니다”는 격려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2022 회원단체 임·직원 직무교육 개최



지난 10월 26~27일 및 11월 10~11일 기간 동안 각 행사별 운영 장소에서 2022년 회원단체 임·직원 직무교육이 개최되었습니다. 10월에는 종목단체, 11월에는 자치구체육회 직무교육이 진행되었는데, 양 행사에서 본회는 2022년 한 해 동안 서울체육 발전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은 회원단체 관계자에게 감사를 표하며 함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서울시청 쇼트트랙팀 박지원 선수 각종 국제대회 입상



서울시청 쇼트트랙팀 박지원 선수가 11월 13일 (일), 미국 솔트레이크시티에서 개최된 2022 ISU 4대륙 쇼트트랙 선수권대회 남자 1,000m 등에서 2관왕을 차지했습니다.

박지원 선수는 해당 대회 이전에 열린 월드컵 1·2차 대회에서 금메달 4개를 획득했는데, 불과 보름만에 세계적인 선수가 준비하는 국제 대회에서 금메달 도합 6개를 따냈으며, 은메달과 동메달까지 합칠 경우 총 10개의 메달 획득이라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이러한 박지원 선수의 금빛 질주에 국제빙상경기연맹(ISU)은 ‘막을수 없는 박지원(Unstoppable PARK)’이라는 표현까지 사용하며 박지원 선수의 활약을 조명했습니다.

2022 손기정 평화 마라톤 개최

지난 11월 20일(일) 송파구 소재 잠실종합운동장 및 주변 도로 일원에서 2022년 손기정 평화 마라톤 대회가 개최됐습니다. 이번 대회는 서울시가 중점으로 추진하는 ‘국제 도시 문화 교류행사’의 일환으로 손기정 탄생 110주년을 맞아 손기정평화재단의 주최로 개최되었으며, 본회는 주관 단체로 참여하여 사업 운영을 지원 점검하였습니다. 대회는 풀코스 및 하프코스를 포함해 5개 코스 총 10,000여 명의 동호인 선수가 참가해 우승을 위한 경쟁보다 손기정 선수를 기념하며 대한민국 체육사를 기념하는 행사로 운영되었습니다.



본회 - 데상트코리아-케이프온 업무 협약



지난 11월 7일(월) 본회 회의실에서 본회-데상트코리아(주)-케이프온(주) 3자 단체간 업무 협약식이 개최됐습니다. 협약식에는 본회 박원하 회장, 데상트코리아 최호준 브랜드매니저, 케이프온 민세중 대표이사를 비롯해 다수의 협약 관계자가 참석해 자리를 빛냈습니다.

3개 단체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서울시 관내 스포츠 발전 및 경기력 향상 등 협약 사항을 이행해 나갈 것을 약속하면서 각 단체의 안녕을 기원했습니다.



서울시청 골볼팀 소속 국가대표 ‘2022 골볼세계선수권대회’준우승



서울시청 골볼팀이 소속되어 있는 대한민국 여자 골볼대표팀이 ‘2022 IBSA Goalball World Championships’대회에서 준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서울시청 골볼팀 정지영 감독이 이끄는 한국 여자골볼 국가대표팀은 12월 7일 자정(한국 시각) 포르투갈 마도지뉴스에서 열린 ‘2022 골볼 세계선수권대회’ 결승전에서 터키를 상대로 4대10으로 패했습니다. 하지만 골볼세계선수권대회에 출전한 서울시청 골볼팀은 준우승이라는 타이틀과 함께 캐나다와 준

결승에서 5대2로 승리해 결승 진출 팀에 주어지는 패럴림픽 출전권을 1996년 애틀란타 패럴림픽 이후 27년 만에 확보했습니다. 패럴림픽 출전권을 획득한 서울시청 골볼팀 소속 국가대표 선수단은 ‘2024 파리 패럴림픽’에 참가합니다.

서울특별시장애인체육회(회장 오세훈)는 앞으로도 국제 대회에서 서울특별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선수단이 활약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서울특별시장애인체육회(주) 광덕안정 업무협약 체결

서울특별시장애인체육회(회장 오세훈)는 작년 12월 12일(월) (주)광덕안정* 대회의실에서 (주)광덕안정(대표이사 주홍원)과 상호 발전을 위한 컨설팅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은 (주)광덕안정의 컨설팅 사업체(한방병원, 한의원, 치과, 법률사무소)에 대해 의료비 및 법률서비스 할인, 언론 홍보 등 상호간 협력 가능한 부분과 세부 운영 기준을 세워 공유하는 것을 목적으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업무협약식에는 (주)광덕안정 위지훈 상무, 이마성 이사, 정구승 변호사, 서울특별시장애인체육회 오광석 기획총무팀장, 장성범 홍보협력팀장 외 관계자분들께서 참석했습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장애인체육 활성화와 양 기관 공동발전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 (주)광덕안정은 축적된 컨설팅 경험과 과학적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서비스, 교육, 마케팅, 조직관리 등 경영 전반에 필요한 종합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식회사입니다.

2022 서울림 운동회 개최

서울특별시장애인체육회(회장 오세훈)는 2022년 11월 5일(토) ‘2022 서울림 운동회’를 잠실 학생체육관에서 개최했습니다. 이번 운동회에는 서울시 관내 20개 중·고교에서 총 179명의 장애·비장애 학생이 참가해 4개 정식종목(농구 골킥 릴레이, 빅발리볼, 스태킹 릴레이, 단체줄넘기)과 화합종목(큰공굴리기, 빈백농구, 단체릴레이 등), 체험종목(보치아,

소다운)을 진행했습니다. 서울림 운동회는 장애·비장애 학생이 하나가 되어 함께 하는 운동회이며 ‘서울림’은 ‘서울’과 ‘어울림’을 합친 조어로, 장애·비장애학생이 스포츠를 통해 어울리고 숲처럼 어우러지면서, 마음의 장벽을 허무는 ‘행복한 서울 청소년 체육’이라는 의미를 담았습니다. 한편 개회식에는 서울특별시 최경주 관광체육국장, 서울특별시교육청 구자희

평생진로교육국장, 김예지 국회의원, 스포츠조선 방성훈 대표이사, 대한장애인체육회 정진완 회장,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조항현 이사장,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 남윤신 원장, 스포츠안전재단 정창수 사무총장, 임찬규 코웨이휠체어 농구단장, 서울특별시장애인체육회 고만규 수석부회장, 각 학교장 외 많은 내빈이 참석했습니다.



서울특별시장애인체육회 뉴스

'2022 캄보디아NPC 및 인도네시아NPC' 국제스포츠교류



서울특별시장애인체육회 캄보디아NPC, 인도네시아NPC와 장애인체육 교류 활성화, 우호 증진을 위한 교류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캄보디아NPC 국제스포츠교류는 2022년 11월 8일(화)부터 11일(금)까지 캄보디아 프롬펜에서 진행했으며, 장애인스포츠 교류의 향서(LOA) 체결과 교류 가능 종목, 종목별 운영 시스템을 점검했습니다. 또한 이비스나(Yi Veasna) 캄보디아NPC 사무총장과 장애인스포츠 시설을 둘러보고 탁구, 좌식배구, 보치아 등을 관람했습니다.

인도네시아NPC 국제스포츠교류는 2022년 11월 22일(화)부터 26일(토)까지 인도네시아 수라카르타에서 진행했으며 인도네시아NPC 장애인체육 시설 점검과 교류 가능 종목, 종목 운영 시스템 점검, 2023년도 스포츠 교류의 향서(LOA) 체결 등을 논의했습니다. 인도네시아NPC에서는 세니 말번(Senny Marbun) 회장, 리마 페르디안토(Rima Ferdianto) 사무차장과 장애인스포츠 시설을 둘러보고 육상, 보치아, CP축구장, 체스 등 종목별 운영 시스템을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서울특별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장애인탁구팀 정영아 선수 국제대회 메달 획득



'제19회 전국농아인체육대회' 서울시 선수단 참가



제19회 전국농아인체육대회가 작년 11월 16일(수)부터 18일(금)까지 3일간 충청남도 서천군과 전라북도 군산시 일원에서 개최했습니다. 총 6개 종목(게이트볼, 배드민턴, 볼링, 슐런, 탁구, 육상) 13개 시도 550여 명의 선수단이 참가하는 대회에 서울시 선수단은 총 6개 종목 선수 35명, 감독코치 17명, 임원 6명 등 총 58명이 참가했습니다. 종합 순위로는 총 득점 11,088.82점(은 3, 동 6)을 획득하며 종합 4위를 차지했습니다. 서울특별시장애인체육회(회장 오세훈)는 대회에 출전한 서울시 선수단의 안전과 선전을 기원하며, 기량을 마음껏 발휘하고 화합을 도모하는 자리가 되길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장애인탁구팀의 정영아(class5) 선수가 작년 11월 6일부터 12일까지 스페인 그라나다에서 개최된 '2022 장애인탁구 세계선수권대회'에 출전하여 혼성 복식(금)과 여자복식(은)에서 각각 메달을 획득했습니다. 이번 대회에서 정영아 선수는 혼성 복식(CLASS XD10) 정영아(서울특별시청), 김영건(광주광역시청) 선수와 여자복식(CLASS WD10) 정영아(서울특별시청), 윤지유(성남시청) 선수와 조를 이뤄 금메달과 은메달을 차지하는 쾌거를 이뤘습니다.

서울 스포츠

1+2월호를 잘 읽었나요?

서울시의 체육계를 이해하는 데 얼마나 도움이 되었나요? 스포츠 모의고사를 통해 다시 한번 독자분들의 이해를 돕고, 소정의 선물을 보내드리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모든 정답은 1+2월호에 있습니다. 그럼 시작해볼까요?

참여 방법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퀴즈 정답은 웹진(QR코드를 클릭하시면 바로 가기 이동) 혹은 이메일 haeung92@seoulsports.or.kr로 2월10일까지 보내주시면 됩니다. (이름, 전화번호, 정답 표기)



퀴즈 정답을 맞으신 분들 중 10분을 추첨하여 2월 중으로 커피 기프티콘을 발송해 드립니다.



STEP 01

당시 고종과 명성황후의 권유로 외국인 선교사들이 스케이트와 피겨스케이팅을 즐겼던 곳은 어디일까요? (힌트_ 6p.)

- ① 경복궁 향원정 ② 경복궁 건청궁 ③ 경복궁 경회루
- ④ 덕수궁 석조전 ⑤ 덕수궁 연지

STEP 02

지방자치단체장과 임기를 맞추기 위해 3년으로 맞췄던 민선 1기 임기와 달리 올해 새로 선출된 민선 2기 시군구청체육회장의 임기는 몇 년일까요? (힌트_ 14p.)

- ① 1년 ② 2년 ③ 3년 ④ 4년 ⑤ 5년

STEP 03

2006년 US오픈에서 심판의 보조 도구로 도입된 비디오 판독 시스템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힌트_ 24p.)

주관식

STEP 04

스포츠 국제대회에서 남과 북이 공동 입장하지 않은 대회는 무엇일까요? (힌트_ 42p.)

- ① 2000 시드니올림픽 ② 2004 아테네올림픽
- ③ 2005 동아시아축구대회 ④ 2006 도하 아시안게임
- ⑤ 2018 평창 동계올림픽

STEP 05

여자 체육교사들이 모여 함께 체육교육에 대해 고민하고, 연구하는 모임으로, 결성한 지 곧 1년이 되는 이 단체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힌트_ 50p.)

주관식

지난호 정답자

허* 이윤* 손예* 이태* 정광* 정정* 오지*
황경* 조예* 전경*

서울광장 스케이팅장

2022.12.21(수) - 2023.02.12(일)

시청 앞 서울광장



주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체육회
SEOUL SPORTS COUNCIL - KOREA SPORT LEADER

후원



신한은행